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 연구

-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혼>,
<산유화>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왕 임 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여 한국 현대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듬은 시적 표현의 특유한 외현방식으로, 시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한국 현대시의 리듬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 작품을 구체화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모국어 시의 리듬 인식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시의 리듬 인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활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김소월의 민요시는 한국 현대시 리듬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며, 뛰어난 한국 현대시 리듬 의식을 담고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리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본 연구는 위 작품들을 가지고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교실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시 리듬 인식 활성화의 가능성을 밝히고, 실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시 리듬 인식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압운 인식’, ‘끊어 읽기 인식’, ‘성조 인식’의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겪는 현대시 이해의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의 원리는 ‘습관화된 반응을 고려한 기대지평의 재구성’,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한 시적 사유의 전환’, ‘경험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인식의 확장’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비교문학과 수용미학의 방법론은 이러한 핵심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현대시

읽기 양상을 살폈다. 각각의 양상을 분류할 때에는 ‘압운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끓어 읽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성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의 범주를 활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은 시를 이해하는 데 촉진과 방해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학습자에 따라 달라지는 수용의 가능성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적인 인식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의미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의 현대시 읽기 양상 분석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하였다. 먼저 교육의 목표는 ‘리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어 교육 내용으로는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은 ‘작품 비교를 통한 리듬 인식 활성화’, ‘발문 조정을 통한 리듬 인식 유형화’, ‘낭독 과정을 통한 리듬 인식 구체화’, ‘압운·음보·강세를 활용한 시 창작’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시의 리듬을 인식하고, 텍스트 외적 형식으로서의 리듬과 텍스트 내적 문맥 간의 조화를 중시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둘째, 한·중 현대시의 리듬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양국 문학의 차이를 발견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자신의 리듬 인식을 소통과 표현에 투사하는 낭독과 창작 활동은 시 감상의 내면화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한·중 현대시, 리듬 인식, 리듬 이해, 비교문학, 배경지식

학 번 : 2015-22398

목 차

국 문 초 록.....	i
목 차.....	iii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9
 II.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이론	14
1.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서의 리듬.....	14
(1) 리듬의 개념.....	15
(2) 한국 현대시 이해에서 리듬 인식.....	19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원리.....	21
(1) 학습자 리듬 인식의 구조.....	21
(2)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의 활성화.....	26
1) 습관화된 반응을 고려한 기대지평의 재구성.....	28
2)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한 시적 사유의 전환.....	33
3) 경험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인식의 확장.....	38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	42
(1) 리듬 인식을 통한 이해 구체화 능력 신장.....	42
(2) 개방적 수용자로서의 시 독자 양성.....	44
(3) 주체적 해석을 통한 문학적 경험 확장.....	46
 III.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양상	48
1. 조사의 설계.....	48
2. 한국 현대시 이해를 위한 리듬 인식의 양상.....	56

(1) 압운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57
1) 관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의 실현.....	57
2) 기대와 불일치로 인한 시적 해석의 방해.....	61
(2) 끊어 읽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65
1) 휴지(休止) 긴장도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읽기.....	66
2) 직관에 의한 음보 구성과 리듬 구조 판단.....	70
(3) 성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73
1) 강세 조성을 통한 직접적 감정 표현과 공감.....	74
2) 억양 차이로 인한 시적 인지 충돌 생성.....	78
3. 한국 현대시 이해에 학습자 리듬 인식의 영향.....	81
(1) 리듬 인식 활용의 긍정적 영향.....	82
(2) 리듬 인식 활용의 부정적 영향.....	83
 IV.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설계.....	85
1.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목표.....	85
(1) 리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86
(2)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87
(3)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	88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	90
(1)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90
(2)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92
(3)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	94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방법.....	95
(1) 리듬 인식을 위한 비교·발문 조정하기.....	97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낭독하기.....	101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모방시 쓰기.....	107
 V. 결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는 가장 짧은 형태의 문학양식으로, ‘리듬’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리듬의 중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철학자 헤겔(G.W. Hegel)은 『미학강의』에서 리듬을 띠는 운문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리듬은 시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감각적인 향기를 띤 것으로서 전적으로 필요하며, 사실 이미지가 풍부한, 이른바 미적인 어법보다 더 필요하다.”¹⁾ 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현대문학 이론가인 켈러(J. Culler) 또한 시에 있어서 리듬 구조와 의미 구조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면서, 저서인 『문학이론』에서 “리듬의 ‘뜻밖의’ 양상들이 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바꾸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시의 악명 높은 매력이다.”²⁾ 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 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아시아 현대문학에서도 리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김준오는 시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첫머리에서 리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³⁾ 정한모 역시 리듬을 그 시작으로 하여 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다.⁴⁾ 중국 근대시인 귀모뤄(郭沫若)는 시의 언어가 가진 특징 중에서 리듬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리듬이 시의 생명력이라고 주장하였고,⁵⁾ 중국학자 주광치안(朱光潛) 또한 리듬이 모든 예술 형식의 영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이 국가와 민족 간의 언어체계가 다르더라도 리듬이라는 요소가 시에서 심미적·의미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두행숙 역, 『헤겔의 미학강의』 vol.3, 은행나무, 2010, p.642.

2) 조너선 켈러, 조규형 역, 『문학이론』, 문학동네, 2016, p.140.

3)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pp.134~156.

4) 정한모, 『한국 현대시의 정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p.1~11.

5) “節奏是宇宙中自然現象的一個基本準則。自然現象不能彼此全同，亦不能全異。全同全異不能有節奏，節奏生於同異相隨相續，相錯綜，相呼應……藝術返照自然，節奏是一切藝術的靈魂” 朱光潛, 『詩論』,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4, p.124.

6) 郭沫若, 『論節奏』, 『文藝論集』, 人民文學出版社, 1979, p.263.

중국의 당시송사(唐詩宋詞)와 한국의 한시 및 시조에서는 정형적 리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현대시에서는 상황이 바뀐다. 1920년대 전후부터 서구의 영향을 받아 시 창작에서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현대시에서 과거 시의 리듬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며, 그것을 변형,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할 수 있다. 현대시는 고시의 운율형식을 변형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현대인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운율리듬을 개척한 것이다. 한국에서 일찍이 시는 음악과 더불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에 와서는 상당 부분 그 음악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시의 형식에서 음악성 또는 리듬은 대표적인 자질로 설명된다.⁷⁾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고전시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글자 수와 시인의 호흡에 따른 정돈(停頓)이 현대시의 창작에서 여전히 중요시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국의 현대시교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가 등장할 때 시의 리듬에 중점을 두며⁸⁾, 중국의 현대시교육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⁹⁾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현대시교육에서 리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리듬을 현대시 이해에 기초적인 지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접할 때 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의 리듬까지도 이해할 때 시를 제대로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호병(1994)은 음악이나 창으로 불렸던 노래시가 아니라 음독(音讀)이나 독서의 대상이 되는 현대시로의 변화에서는 창작자보다는 수용자가 그 형식을 그렇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¹⁰⁾고 주장한다. 이는 수용자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며, 수용자의 기존의 인식을 동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외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접할 때 학습자의 문학적 경험이나 자국

7) 윤여탁, 『현대시의 내포와 외연』, 태학사, 2009, p.28.

8) ‘한편, 시는 운문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산물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1종 저서 편찬 위원회, 『중학교 국어 1-1』, 2001.(민재원, 「현대시 리듬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에서 재인용.)

9) 黃正剛, 「淺談中學語文現代詩歌教育的意義」, 『現代語文:教學研究版』 vol.9, 2016, pp.103~104.

10)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4, p.184.

어 지식이나 문학작품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학습자가 자기 마음속에 확정되어 있는 습관화된 반응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할 때에는 그 어떤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국의 문학교육과 경험을 통해 얻은 리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접하게 되면, 자신의 인식을 토대로 한국시의 리듬을 파악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리듬에서 드러나는 시의 고유한 정서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교육에서 리듬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와 시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들이 외국어로 된 시를 이해할 때 결국 ‘대조 번역’의 단계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¹¹⁾ 이때 학습자는 시 자체의 심미적·예술적 가치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미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미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수용자는 미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까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등의 문학작품은 그저 ‘신비한 것’이 되어버린다.¹²⁾ 그 중 하나가 리듬이다. 모국어로 된 시와 언어체계가 다르고 읽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시에 대한 리듬 인식을 다시 구축하고 확장시켜야 학습자가 시의 본질인 리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의 정서를 제대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듬 인식에 달려 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리듬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현대시를 대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국어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시의 리듬을 중국인 학생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형적인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 형식으로서의 리듬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시를 학습할

11)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의 결과이다.

12) 김남희, 「현대시 수용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3.

때 오는 부담감과 생경함을 즐거움과 흥미로 전환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인 수용 태도를 함양하고, 한국 현대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교문학 방법을 통한 학습자 리듬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세 범주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는 한·중 리듬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고, 다음은 이에 대한 현대시 교육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마지막은 비교문학의 관점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다.

(1) 한·중 현대시 리듬에 대한 연구

한국 현대시에 관한 연구에서 리듬으로 시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은 주로 형식으로서 리듬의 자질, 시의 의미와 미적 정서의 연계라는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리듬의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김대행(1976), 오세영(1996), 백운복(2001) 등의 논의들을 들 수 있다. 김대행은 운율의 기본적인 특징을 일정한 대상의 주기적 반복과 교체로 보면서 음보 안의 자율적인 어군 조절을 인정하고 있다.¹³⁾ 그리고 리듬과 운율의 개념을 대해 설명하였는데, 운율은 정해진 규칙성이 있는 반면에 리듬은 형성화되는 언어 현상, 즉 실현되는 시 텍스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아, 운율보다 리듬을 큰 개념으로 보았다. 즉 문학의 리듬 개념을 구체적이고 특수화된 개념으로 파악하며 독자적인 리듬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⁴⁾ 오세영은 시행을 구성하는 음절수의 규칙성과 시행을 호흡의 단위로 나누는 ‘마디’의 정형성을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13)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p.36.

14) 김대행, 『운율』, 문학과 지성사, 1984, pp.13-18.

하여 형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¹⁵⁾ 백운복은 시의 리듬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소리이면서 그 밖의 다른 구성 요소인 말 뜻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면서, 시의 리듬을 시에 나타나는 말소리 및 말 뜻을 배열하는 양식으로, 이 때 배열 양식은 내면적·유기적 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전제하였다.¹⁶⁾

리듬과 의미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기옥(1986), 김창원(1995), 황정산(1997), 백운복(2001), 김정우(2005) 등을 들 수 있다. 성기옥은 운율을 논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학적인 사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미적 현상을 밝히려는 문학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 그는 운율이 단순히 형태적 측면에서만 이해되지 않고 미적 정서와 긴밀하게 연계되고, 또 시의 음악성은 물론, 시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창원의 논의에서는 하나의 시 텍스트에서 운율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고 그러한 운율을 내면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운율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자질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원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⁸⁾

한편 중국 현대시의 경우 리듬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듬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리듬의 특징 및 구조 분석과 리듬의 의미적·서정적 지향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 현대시가 전통시가의 형식에서 벗어나 리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면 귀모뤄(郭沫若), 주광치안(朱光潛)에까지 이른다 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국 현대시가 유럽시가와 다른 리듬상의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였고 ‘장단’, ‘고저’, ‘경중(輕重)’ 등 리듬의 표현을 강조하였으며, 힘과 시간이 리듬의 생성을 좌우한다는 논의도 제시하였다.¹⁹⁾ 그러나 다른 언어와 달리 한자 발음은 장단이나 고저가 잘 드러나지 않아, 결국 현대시가 발전

15) 오세영, 『한국 근대문학과 근대시』, 민음사, 1996, p.67.

16) 백운복, 『현대시의 논리와 변명』, 국학자료원, 2001, p.66.

17) 성기옥, 「韓國詩歌의 律格體系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0, pp.51-55.

18)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238.

19) 郭沫若, 「論節奏」, 『文藝論集』, 人民文學出版社, 1979.

朱光潛, 『詩論』,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4.

함에 따라 음의 장단, 고저와 경중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왕리(王力)의 논의에서는 서구시의 리듬적 특성을 중국시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강약이나 경중을 중국어 리듬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²⁰⁾ 신월파(新月派)가 나타난 후 중국 현대시 리듬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리듬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돈(頓)’을 바탕으로 ‘음돈(音頓)’과 ‘의돈(意頓)’ 두 가지 주장을 형성하였다. 리장빈(李章斌)은 음돈이든 의돈이든 그 본질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음보(돈), 배행, 억양, 압운 등 모두 현대시 리듬의 중요 표현이고, 이로부터 현대시 리듬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²¹⁾

중국 전통시가 음운론의 구속에서 변화하여 리듬이 자유로워진 현대시는 의미 전달에서 더 풍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현대시의 형식적인 리듬이 작품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시인 애칭(艾青)은 이에 대해 글자가 리듬을 통해 작품의 정서와 사상을 통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²⁾ 같은 견해를 가지는 학자들로는 종백화(宗白華, 1941), 뤼한초(駱寒超, 2002), 뤼정혜(呂正惠, 2011)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종백화는 현대시가 전통시의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서, 새로운 세계관, 삶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 맞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³⁾ 뤼한초는 시인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객관적인 형식과 융합하고 있으며, 시의 리듬은 시구의 억양이 아니라 시정(詩情)의 억양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뤼정혜는 심미적인 측면에서 현대시의 형식과 의미간의 연계를 검토하고, 운율, 의의, 예술적 경지 등 미의 감성은 종합적인 것이고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고 주장하였다.²⁵⁾

20) 王力, 『漢語詩律學』, 上海教育出版社, 2005, p.865.

21) 李章斌, 『在語言之內航行：新詩韻律及其他』, 人民文學出版社, 2014, pp.8-25 .

22) 艾青, 『詩論』, 花城出版社, 1985, p.340.

23) 宗白華, 「歡心的回憶和祝賀」, 『時事新報』, 1941.11.10.

24) 駱寒超, 『20世紀新詩綜論』, 學林出版社, 2002, p.701.

25) 呂正惠, 『抒情傳統與政治現實』,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11, p.24.

(2) 한·중 현대시 교육에서 리듬에 대한 연구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리듬, 더 넓게는 시의 형식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들은 주로 시의 형식이 그 작품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²⁶⁾ 이 중에서 최미숙(1996), 김창원(1996), 김정우(2005) 등의 논의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최미숙은 일탈의 형식에 주목하면서 그것들이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²⁷⁾ 김정우의 논의 역시 시를 읽는 행위가 내용 파악에만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형식이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⁸⁾. 김창원은 시의 형식 가운데 운율의 차원에 대한 교육을 논의하면서 “운율은 분류학이기는 미학이 되어야 하고, 시 일반론이기보다는 작품론이 되어야 한다.”²⁹⁾라는 주장을 하였다. 시의 형식과 내용의 연계 측면 외에 학습자의 리듬 인식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재원(2005)은 정형화된 리듬에서 자유로운 리듬으로의 위계화와 리듬의 인식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지식의 체계는 리듬 지향성의 형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리듬 인식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행 활동의 원리를 제시하였다.³⁰⁾

중국 현대시 교육에서 리듬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 전체적 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시는 전통적인 운율 규칙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외재적 리듬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현대시의 리듬을 이해시키는 것이 내재된 의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위애핑(於爱萍, 2004), 왕자신(王家新, 2005), 조우홍(周宏 2014)등을 들 수 있다. 위애핑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현대시의 리듬 표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작품의 내용 이해와 연결시켜 학습자의 문학 심미의식을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³¹⁾ 왕자신은 시가 문학의 핵심이라고 보며, 교육의 장에서

26) 민재원, 앞의 논문, p.5.

27) 최미숙, 「시의 형식과 주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p.237.

28) 김정우, 「시 형식의 의미에 대한 시 교육적 고찰」, 『문학교육학』 vol.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4.

29) 김창원, 『운율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p.268.

30) 민재원, 앞의 논문, p.84.

시 교육이 아니라 시 감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고전시가와 달리 현대 신체시가 새로운 리듬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시의 정서 또한 리듬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학습자가 현대시를 이해할 때 리듬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우홍은 현대시 자체의 예술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학습자가 억양과 음보의 변화를 통해 시의 정서를 감지하고, 이어서 시 내용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며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3) 한·중 리듬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교육 중 비교문학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윤여탁은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학습자는 자국어교육을 통해 현대시와 같은 운문을 다양하게 접했으며, 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밝혔다.³⁴⁾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학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소양을 활용하고 한국 현대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여탁의 연구는 본 연구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오지혜·윤여탁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면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세 편의 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시의 언어적·정서적 측면, 그리고 외적 형식의 측면에서 시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기하였다.³⁵⁾

김염은 기존의 강독 중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번역과 비교문

31) 於愛萍, 「中學語文詩歌教學的缺失與審美回歸」, 南京師範大學碩士論文, 2004.

32) 王家新, 「讓詩歌照亮語文教學」, 『語文建設』 vol.6, 2008.

33) 周宏, 「中學語文現代詩歌的教學反思及初探」, 『現代語文』 vol.3, 2014.

34)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현대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vol.111, 2003, p.517.

35) 오지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학의 방법을 적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염의 연구에서는 수업을 통하여 중국의 한국어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교육 방법의 개선이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한국의 대표 시인 김소월과 중국의 대표 시인 쉬즈모(徐志摩)를 중심으로 주제와 형식적 측면에서 대비하였다. 특히 형식으로서의 리듬에 대한 내용을 시 대비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³⁶⁾

전홍은 한·중 현대시 텍스트 간의 맥락에 주목하여 김소월의 「초혼」과 쑨다위(孫大雨)의 「초혼(招魂)」을 대비 이해 텍스트로 선정하고 대비 이해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두 시가 갖는 내용적·의미적 이동성을 중심으로 한·중 시 대비 이해 교육 내용과 절차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동성의 원인 탐구 과정은 학습자의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보여주었다.³⁷⁾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한국현대시교육에서는 비교문학의 방법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아직 교육의 장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의 독특한 장점인 리듬이 현대시 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결국 한국 시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현대시 비교문학교육방법을 가반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리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면서 발산적으로 한국 시의 리듬을 인식하고 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열린 접근을 지향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현대시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현대시의 대표 시인인 김소월 시의 리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36) 김염,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 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37) 전홍,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이 연구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의 리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중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전반적인 리듬 특징을 포괄하지 못하고 리듬 인식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김소월의 민요시는 뛰어난 리듬 의식을 지녔기에 학습자가 이로부터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³⁸⁾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활용 양상을 관찰하고 교육하는 데 시적 리듬의 특징과 대표성을 띤 김소월의 시를 선정한다는 것이 또한 적절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기존에 리듬 인식을 매개로 하여 한국 현대시 리듬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내면화하며, 김소월의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최대한 환기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교문학 방법론에 기반하였고 뚜렷한 리듬 인식을 지니는 중국 현대시를 도입하였다. 연구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다.

38) 김소월 시의 리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억은 “素月이自身은 어떤理由인지 물으거니와, 民謠詩人과 自己부르는 것을 그는 실혀야 詩人이든 詩人이라 불너주기를 바래든것이외다. 그러나 事實은 亦是그는어 데까지든지 民謠形에 類다른숨씨를 보여주든것이외다 그리고 그것이가장 自然스러웁습니다.”라는 견해를 보여준다.

김억, 「요절한 박행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 『조선중앙일보』, 1935.1.25.

오세영은 시의 음율상 김소월의 시가 전래 한국 민요의 리듬을 차용하거나 계승·발전시켰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2000, p.92.

윤여탁은 1920년대의 한국 민요조 서정시에서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는 김소월 시가 민요의 서정적 특징과 표현 방식을 계승하고 부분적인 민요를 차용하였다는 견해를 보여 준다. 또한 김소월의 시는 한국 근대시의 리듬의식이나 언어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다.

윤여탁, 「1920년대 민요조 서정시 연구 - 서정시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vol.57, 한국어교육학회, 1986, p.338.

고정희는 민요와 「진달래꽃」의 명시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한국 민요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고정희, 「〈영변가〉와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적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vol.30, 한국시가학회, 2011, pp.286-287.

장철환은 김소월 시의 리듬은 한국 근대 자유시의 내재율과 외형률이 상호 교차하는 중심 지점으로 기능하면서 과거와 현재 안과 밖,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분법적 계기들의 길항관계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장철환, 『김소월 시의 리듬 연구 :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소명, 2011, p.10.

김소월 시 작품	발표 시기	중국의 시 작품 및 시인	발표 시기
진달래꽃	1922	教我如何不想她-劉半農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 유반농	1920
산유화	1922	再別康橋-徐志摩 재별강교 - 쉬즈모	1928
초혼	1922	紅燭-聞一多 홍촉-원이뉘	1923

비교분석 대상으로서의 한·중 현대시 작품을 선정한 기준은 윤여탁(2009)의 한국어 문학교육에 적합한 대비 연구에서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고려하였다.³⁹⁾ 위의 작품들을 비교분석의 제재로 선택한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한·중 현대시는 모두 각각의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정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문학 수업은 문학정전의 유의미한 교수·학습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 시인 김소월과 중국 시인 유반농, 쉬즈모, 원이뉘는 각국의 현대시 성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구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형틀을 탐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1920년대의 한국과 중국 문단은 모두 시의 새로운 형식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그들은 모두 비슷한 사회 배경하에 있는 민중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셋째, 비교문학교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한·중 현대시 작품들은 모두 각 나라의 시사(詩史)에서 전통적인 리듬의 수용과 발전의 결과를 이루었으며,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 리듬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소월의 시에 드러나는 민요조 리듬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리듬상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리듬 인식을 잘 살릴 수 있는 중국 현대시 작품을 선택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이해할 때 자신의

39)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vol.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53-70.

선형적인 리듬 인식과 문학적인 경험을 동원하여 리듬을 파악하고 시에 대한 깊이 이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한·중 현대문학사에서 리듬이 두드러지며 정전인 시 텍스트를 서로 대비하여 이해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시의 리듬에 대해 보다 깊게 인식할 수 있으며, 언어 체계가 다른 한국 시의 리듬감에 대해 포용적인 문학 태도를 함양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시의 일차적 요건인 리듬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자발적 탐구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을 목적으로 총 3차례의 실험조사를 거쳐 실험 결과를 수집하였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⁴⁰⁾

차수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인원/편수	활동 내용	제시 작품
예비 실험	2017 5월 하순	서울 S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TOPIK 고급)	15 명	-주제 인터뷰 (한·중 현대시 리 듬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 등 8개 문제 제 시)	「진달래꽃」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1	2017 년 6월 초순	서울 S 대학교 및 Y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TOPIK 고급)	12 명 36 편	-수업을 각 4명 의 인원수로 나 누어 진행함 -한국 현대시 리 듬 관련 수업 진 행 및 수업 감상 문 작성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2	2017 년 6월 하순	중국 H대학교 3, 4학년 학생 및 중국 S 대학교 4학년 학생	28 명 84 편	-수업을 각 11 명, 12명, 5명의 인원수로 나누어 진행함 -한·중 비교문학	「진달래꽃」-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산유화」-

40) <표 1>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발화 방식은 학습지 대답(PA)과 사후 인터뷰(IA) 두 가지로 나누어 기호화한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 기록은 ‘[실험 차수-발화 방식-학생 일련 번호-작품명]’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TOPIK 고급)		교육 방법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리듬 인식 수업 진행 및 수업 감상문 작성	「재별강교」 「초혼」 - 「홍축」
3	2017 년 8월	서울 Y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TOPIK 고급)	6 명 18 편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적용	「진달래꽃」 -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산유화」 - 「재별강교」 「초혼」 - 「홍축」
	2017 년 11월	서울 S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TOPIK 고급)	6 명 18 편	-검증실험을 위해 수업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시행 -활동지 작성과 면대면 인터뷰	「진달래꽃」 -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산유화」 - 「재별강교」 「초혼」 - 「홍축」

활동지의 설계는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과 활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독자의 위치와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문학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⁴¹⁾ 이는 반응의 형성, 명료화, 심화의 3단계로 나누어 구조화된 과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수업 현장에서는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중 비교문학교육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어려운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로 된 시 텍스트 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시적인 감수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학습자의 수용 양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1)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184.

II. 리듬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시의 리듬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리듬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시의 형식으로서 리듬이 시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국 현대시 이해에서 리듬 인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리듬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고유한 리듬 인식인 압운 인식, 끊어 읽기 인식, 성조 인식이 각각 어떠한 지향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잘 이해시키려면 어떠한 원리를 교육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비교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리듬 인식을 확장하고,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이저(W. Iser)의 심미적 구체화 이론과 기대지평 재구성 이론을 통해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한국 현대시 텍스트에서의 리듬

이 절에서는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현대시 리듬 인식과 이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대시에서 리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의미역이 넓은 리듬 개념 중에서도 시에서의 리듬이 형식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시에 대한 리듬 인식은 습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리듬이 가지는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어서 (2)항에서는 이러한 리듬의 성격이 김소월 시의 구체적인 형태와 시 인식과 이해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현대시는 전통 율격과 달리 자유로워지고 또 많이 복잡해졌다는

점, 산문의 형식과 구분되는 특징으로서의 리듬감을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운율의 상위 개념인 리듬을 사용하고자 한다.

(1) 리듬의 개념

시에서 리듬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¹⁾이며, 시의 질서와 균형을 느낄 수 있는 음악적 언어와 결합하여 시를 이루는 것에 해당한다. 시의 이러한 음악적 특성과 관련하여 리듬, 운율, 율격 등의 다양한 용어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리듬(rhythm)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이한 요소들이 재현하는 흐름이나 운동을 말한다. 시에서 리듬은 반복성이 느껴지는 음악적 현상을 포함하며, 대립적인 요소의 반복적 교체²⁾가 특징이다. 이러한 리듬의 교체적인 요소가 시행의 차원에서 규칙화 또는 제도화한 양식을 율격(律格)이라고 한다.³⁾ 즉 율의 고저, 강약, 장단을 규칙적·반복적인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의 율격이며, 시에 나타나는 특별한 음운 자질이다.

이처럼 소리의 시간적 질서 위에서 나타나는 거리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율격과 달리 압운(押韻)은 위치의 반복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위치의 반복은 동일한 소리 장치의 반복을 뜻한다. 압운은 바로 이러한 동일하게 반복된 소리에 의해 형성되는 리듬감이다.

율격과 압운이라는 작시법의 중요한 양대 지주를 합쳐서 운율(韻律)이라 부르는데, 운율은 바로 이러한 운(韻)과 율(律)을 합한 개념이다. 운율은 뚜렷한 규칙을 보이며 반복된다는 점에서 리듬과 구분된다.⁴⁾ 이를 통해 운율이 리듬 형성의 기초이며, 운율의 외현 형식은 리듬⁵⁾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시는 전통의 엄격한 작시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듬의 성격을 띠므로 규칙성과 반복성만 강조하는 운율은 이러한 현대시의 리듬 형식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⁶⁾

1) 이해원, 『현대시 운율과 형식의 미학』, 서정시학, 2015, p.13.

2) 성기옥, 『한국 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pp.288~289.

3) 김대행, 『韻律』, 文學과 知性社, 1984, pp.11~13.

4) 이해원, 앞의 책, p.13~14.

5) 许霆, 『中國新詩韻律節奏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6, p.20.

6) 민재원, 「현대시 리듬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2.

따라서 본 연구에는 운율의 상위 개념인 리듬을 한·중 현대시 이해에 핵심 문제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한국 시의 리듬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한국 시의 리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조 두 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① 청산도/절로절로/녹수도/절로절로/
산 절로/수 절로/산수간에/나도 절로/
이 중에/절로 자란 몸이/늡기도 절로/하리라/

여기서 한 음보는 대체로 3~4음절을 기준으로 한다. 3음절 · 4음절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가 2~3음절의 단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장의 경우 이렇게 끊어 읽기에는 각각의 음보가 심한 음절수의 차이를 보인다. 그 기준은 4음절이 되고 그보다 짧은 것은 길게, 그보다 자수가 많은 것은 빨리 짧게 줄여서 읽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음보의 시간적 등장성을 구현한다는 점이 한국 시 율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⁷⁾

- ② 동창이/뵈았느냐//노고지리/우지진다//
소치는/아희눔은//상기 아니/일었느냐//
재너머/사래 긴 밭을//언제 갈려/하느니//

여기서 //로 표시된 부분은 /로 표시된 부분보다 좀 더 긴 쉼을 둔다. 이는 /로 표시된 부분이 //로 표시된 부분에 비해 두 음보간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이다. 이 시조의 끊어 읽기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음절간의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음보씩 긴밀하게 짝을 이룬다. 이렇게 두 음보씩 짝을 이루는 것을 2음보 대응(對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장음화하는 것은 대체로 그 음보의 최종 음절이다. 그 결과 장음화된 부분이 강세를 띤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한국 시의 리듬적 특성은 첫째, 등장성의

7) 김대행, 『우리시의 틀』, 문학과비평사, 1989, p.35.

음보라는 점, 둘째, 2음보 대응의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대응하는 두 음보 간의 강약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⁸⁾

이어서 한국 시의 리듬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국 전통적 리듬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현대시의 리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한국 전통적 리듬의 기본 구조는 무엇보다 민요에서 명확하게 파악된다. 한국 시의 리듬 형성 단위는 음절 · 음보 · 행 · 연이다. 한국 시의 규칙은 한 행이 고정적인 음보수로 이루어지고 가변적인 음절수로 구성되는 것이다.⁹⁾ 한 행을 이룰 수 있는 음보수는 1 · 2 · 3 · 4 · 5 · 6음보 등인데, 이 중에서 3음보와 4음보는 전통적 율격의 기본 형태이다. 민요는 이러한 전통적 율격에 해당하는 3음보격의 민요와 4음보격의 민요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⁰⁾ 예컨대 다음의 예가 민요의 3음보를 잘 드러내준다.

피나리 붓짐을 쫓아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오소
북간도 별판이 좋다드라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넘어
북간도 별판을 해매인다.

- 「신아리랑」

여기서 한 음보는 3 · 4 · 5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음절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 행의 음보수는 3음보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민요가 음보를 이루는 음절수는 원칙적으로 가변적인 데 비해서, 행을 이루는 음보수는 원칙적으로 고정적¹¹⁾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 현대시는 전통 민요의 리듬에서 출발하고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변형되었다. 개화기 시가를 대표하는 창가는 일본 시가의 오랜 율격인 7·

8) 김대행, 앞의 책, 1989, p.37.

9) 노철, 「시 감상교육에서 운율의 활용 연구」, 『한국 시학연구』 vol.11, 한국 시학회, 2004, p.267.

10) 김대행, 『韻律』, 文學과知性社, 1984, p.119.

11) 위의 책, pp.120~123.

5조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 의식을 전통적 시 형태에 의해 전달하였다. 김대행(1981)에 의하면 7·5조 창가체는 일본 시가의 수용이라기보다는 한국 시가의 전통적 율격을 변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7·5조라는 일본 시가의 용어자체가 7음절과 5음절로 이루어지는 2음보 율격 구조를 암시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소위 7·5조는 앞의 7음이 형태상 3·4조 혹은 4·3조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어서 결국 3·4·5조 혹은 4·3·5조 3음보 율격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²⁾ 3음보 율격의 계승과 변형을 김소월의 「산유화」를 예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산에는/꽃 피네/꽃이 피네/ 갈 봄/여름 없이/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 저만치/혼자서/피어 있네/ 산에서/우는/작은 새요/ 꽃이 좋아/산에서/노래하네/ 산에는/꽃 지네/꽃이 지네/ 갈 봄/여름 없이/꽃이 지네/
--	--

4행 4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리듬적 질서가 드러나지 않고, 표의 오른쪽

12) 김대행, 「민요조 재고」, 국어국문학회 엮음, 『현대시 연구』, 정음사, 1981, p.189.

부분과 같이 표기하면 각 연이 모두 2행으로 된 정상적인 3음보격이 나타난다. 김소월은 3음보를 1음보씩 또는 2음보와 1음보로 분단하는 변형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행 배열의 측면과 운의 기능을 보이는 ‘-네’의 측면에서 이 시는 반복과 대립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음성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반복과 대립의 구조는 그 자체로 시의 리듬감을 형성한다.¹³⁾

(2) 한국 현대시 이해에서 리듬 인식

현대시의 리듬을 인식하기 위해 인식 대상이 위치하는 방향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리듬은 물리적인 것인가 심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인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김창원의 논의를 따르면 리듬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때 그것은 감각의 문제로 환원된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리듬은 일치와 차이, 반복과 병치 같은 것들이 주는 미적 효과로 환원된다. 한편으로 리듬은 관습적인 현상으로 보면, 리듬은 자동화된 표현 양식과 그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문제로 환원된다.¹⁴⁾ 이상을 고려할 때 시 작품에 접근하는 외국인 독자에게서 나타나는 리듬 인식은 먼저 선행적으로 관습적 차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독자는 먼저 모국어 체계를 바탕으로 모국어적인 리듬을 인식을 생성한 후, 이것을 외국 시 작품에 적용하여 시적 리듬을 감지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외국어로 된 시 작품에 존재한 리듬을 독자가 어떤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독자는 자신의 모국어로부터 유래된 습관적인 지각으로 대상을 인식할 것이고,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후설(E. Husserl)은 이런 관계를 맺는 성향을 지향성¹⁵⁾이라고 부른 바 있다. 지향성의 개념에 대하여 후설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13)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65.

14) 김창원, 「운율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1996, 시와 시학사, pp.264~265.

15) E. Husserl, 이영호, 이종훈 옮김, 『현상학의 이념·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서광사, 1988, pp.108~109.

더 나아가 외부지각은 그림지각이라는 심리현상과 구별된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물, 즉 외부지각의 대상으로서의 그림이다. 이 경우 그림은 우리에게 어떤 색들로 이루어진 어떤 크기를 지닌 대상이라는 의미로 주어진다. 이러한 식으로 지각될 때 이 그림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물들 - 책상, 의자, 책 등 - 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처럼 그림이 단순한 외부지각의 대상으로 주어질 때 외부지각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그림지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그림지각은 외적 사물로서의 그림에 대한 외부지각을 기초로 하여 그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새로운 지향체험이 형성되었을 때만 가능하다.¹⁶⁾

정리하면, 그림지각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물을 인식할 때에 그 사물에 대해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각을 말한다. 이때 주체는 그림에 대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지각은 즉 존재 자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민재원(2006)에 따르면 지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대상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태도이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접할 때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경우 지향성의 특징은 학습자들이 시가 가진 리듬에 대한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질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¹⁷⁾ 시의 경우는 형식적 특징으로서의 행과 연의 배열이 일련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시 자체의 내용에 대한 지향성도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해 민재원은 독자가 시를 접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는 내용 지향성이고 다른 하나는 리듬 지향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작품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지향성은 내용 지향성이며,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는 리듬에 대한 지향성은 리듬 지향성이라고 부른다.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을 향한 인식 활동은 경험적인 성격을 지닌다. 리듬

16)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65.

17) 민재원, 앞의 논문, pp.14~15.

인식은 바로 이런 경험적인 자질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듀이(J. Dewey)에 의하면, 이차적 경험의 성격을 가진 과학적인 이론 역시 일차적 경험인 직접적 관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¹⁸⁾ 이것은 특히 외국인 학습독자가 시에서의 리듬을 인식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습과 경험의 층위에서 존재하는 리듬 인식에 주목하였다. 한국 현대시 작품을 접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가지는 시적 지각은 습관화된 리듬 인식과 새로운 리듬 인식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지각의 층위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인식할 수 있다.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원리

(1) 학습자 리듬 인식의 구조

중국인 학습자들은 고전 시의 운율 형식과 중국어 자체의 발음 특성의 영향으로 시의 리듬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와 작가적인 판단을 이미 오랫동안 형성해왔으며, 시를 읽는 어감과 리듬감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한국어를 배워나가고 한국 시를 읽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리듬 인식의 구체적인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 시 리듬 이해에 관건이 된다. 여기에서는 리듬 인식의 활용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 시의 리듬 형태와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 시에서 리듬은 절주(節奏)로 표현하며 리듬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글자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節’은 소리가 없이 정돈(停頓)이라는 뜻이고, ‘奏’는 이와 반대로 소리를 내는 뜻이다. 이어서 ‘節’과 ‘奏’의 규칙적인 중복이 리듬감을 형성한다. 중국 시 리듬의 특징은 역시 시간의 등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중국 시를 분석할 때 리듬과 같이 논의하는 다른 하나의 요소는 운율이다. 운(韻)이란 중국어 음절에서 성모(聲母)와 성조(聲調)를 제외한 부분이다. 압운

18)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pp.54~55.

19) 丁魯, 『中國新詩格律問題』, 北京昆侖出版社, 2010, pp.99~100.

은 같은 운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같은 자리에서의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리듬과 운율의 관계에 대해 논한 쉬팅(許霆, 2006)에서는 운율은 추상적 규칙이며 리듬의 기초를 마련해 주고, 리듬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²⁰⁾ 이를 통해 리듬과 운율 사이는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대결하기도 하는 변증법적인 관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학 관점에서 한·중 시의 리듬에 대해 대비이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운율 대신에 리듬을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 전통 정형시의 리듬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2·2돈(頓)	2·3돈(頓)	2·2·3돈(頓)
詩經·小雅·采薇 (부분) ²¹⁾ 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	陶淵明 - 飲酒 (其五) ²²⁾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真意/, 欲辨/已忘言/	陸遊《遊山西村》(부분) ²³⁾ 莫笑/農家/臘酒渾/, 豐年/留客/足雞豚/ 山重/水複/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

20) “韻律是抽象規則，為節奏提供基礎；節奏是具體方法，對韻律進行調整”， 許霆， 앞의 책, p.20 참고.

21) 「시경(詩經)·소아(小雅)·채미(采薇)」의 부분

昔我/往矣(석여/왕의)	지난 날 내가 떠날 때는
楊柳/依依(양유/의의)	버드나무가 봄바람에 하늘거렸는데
今我/來思(금아/래서)	지금 내가 돌아갈 생각하니
雨雪/霏霏(우설/비비)	진눈깨비 날리는 겨울 되었네

22) 도연명(陶淵明) 「음주(飲酒)」

結廬/在人境(결려/재인경)	오두막이라도 사람 틈에 짓고 사는데
而無/車馬喧(이무/거마환)	수레 몰고 찾는 이 없다네
問君/何能爾(문군/하능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묻는가
心遠/地自偏(심원/지자편)	마음이 멀면 사는 곳 또한 절로 외지지 않던가
采菊/東籬下(채국/동리하)	동쪽 울타리 국화꽃 따들면
悠然/見南山(유연/견남산)	남산이 한가로이 눈에 든다네

중국 전통적 리듬의 특징에 대해 허치팡(何其芳, 1954)은 ‘돈(頓)’²⁴⁾을 리듬 단위로 삼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고전시의 호흡의 기본 단위는 ‘돈’으로 정의하며, 짧고 미세한 음성요소라고 하였다.²⁵⁾ 위안싱배(遠行霏, 1987)는 중국 고전 시가는 음절의 조합으로서 한 행에서 2음절씩 음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는 중국 최초의 민요를 중심으로 모은 시집 『시경(詩經)』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5음절로 이루어진 오언율시(五言律詩)는 2·3 ‘돈’을 위주로 하고 7음절로 이루어진 칠언율시(七言律詩)는 2·2·3 ‘돈’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돈’의 의미와 리듬적인 역할은 음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전통 정형시에서 압운(押韻)은 또한 중요한 리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압운이란 시의 운을 맞추는 것으로 중국 시의 가장 기초적인 수사기교이다.²⁷⁾ 『시경』에서 비롯된 전통 정형시의 경우 매 연의 끝 글자들에 성모(聲母)는 다를 수 있으나 운모(韻母)는 같은 글자를 써서 발음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상은 압운이다. 위에 제시한 「시경(詩經)·소아(小雅)·채미(采薇)」에서 볼 수 있듯이 연마다의 끝 글자로서 ‘矣’, ‘依’, ‘思’는 모두 같은 운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飲酒)」에서 매 연의 끝 글자 ‘喧’, ‘偏’, ‘山’, ‘還’, ‘言’의 성모가 다르지만 같은 운모를 가진다. 이처럼 매 연에

山氣/日夕佳(산기/일석가) 해질녘에는 산기운이 더 아름다운 법 飛鳥/相與還(비조/상여환) 날새들도 어울려 돌아오고 此中/有真意(차중/유진의) 이 여유로움에 참뜻이 있는데 欲辨/已忘言(욕변/이망언) 말하자니 할 말을 못 찾겠군
--

23) 육유(陸游) 「유산서촌(遊山西村)」의 부분

莫笑/農家臘酒渾(막소/농촌/랍주혼) 농가의 그믐 술이 익어간다 웃지 마라 豐年/留客/足雞豚(풍년/유객/족계돈) 풍년에 손님 잡기에 닭도 돼지도 풍족하다 山重/水複/疑無路(산중/수복/의무로) 첩첩 산중 강 건너 또 강이니 길이 없는 듯한데 柳暗/花明/又一村(류암/화명/우일촌) 버들은 짙푸르고 꽃 만개하니 또 마을 하나
--

24) 頓은 어느 정도 음보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중국 시는 소리의 고저·기복·휴지·곡절을 의미하는 抑揚頓挫를 중시하기 때문에 頓은 곧 頓挫의 뜻을 한다. 음보와 비슷한 뜻이다.

25) 何其芳, 「關於現代格律詩」, 『人民文學』 vol.10, 1954, p.17.

26) 遠行霏, 「中國古典詩歌語言的音樂美」,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7, p.62.

27) 박석, 『중국문화 대교약술:마치 서툰 것처럼 보이는 중국문화』, 도서출판 들녘, 2007, p.52.

동일한 운을 맞춰야 하는 것은 정형시의 압운 격식이다.

음보와 압운 외에 평측(平仄)은 전통 정형시의 리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음양 패턴이다. 평측이란 중국어 성조(聲調) 중의 사성(四聲)을 이용하여 강약적인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법이다. 평(平)은 평직한 소리인 평성(平聲)이며, 기우는 소리인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을 모두 '측(仄)'이라고 한다.²⁸⁾ 육유(陸游)의 「유산서촌(遊山西村)」은 칠언율시(七言律詩)의 평측 격식인 ‘측측/평평/측측/평, 평평/평측/측/평평(仄仄/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平平)’에 따라 작성하는 시이다.

중국 현대 신체시는 2·2頓, 2·3頓, 2·2·3頓을 바탕으로 1음절씩과 4음절씩 頓의 형식을 개척한다. ‘5·4 운동’ 후 문언시[舊體詩]와 달리 전통적 율격과 형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며, 백화시(白話詩)로 작성되고 격식적인 평측과 압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리듬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국 현대시의 대표시인 쉬즈모의 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輕輕的 / 我 / 走了 /,	살며시 내가 왔듯이
正如 / 我 / 輕輕的 / 來 /;	살며시 나는 떠나간다
我 / 輕輕的 / 招手 /,	나는 살며시 손을 흔들며
作別 / 西天的 / 雲彩 /。	서쪽 하늘의 구름과 이별한다

- 쉬즈모(徐志摩) 「재별강교(再別康橋)」의 부분

쉬즈모(徐志摩)의 이시를 보면 중국 전통 정형시의 엄격한 작시법이 현대 자유시의 새로운 작시 기법으로 변해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형시에서 강조하는 압운, 음보, 평측 기법은 모두 동일한 격식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압운, 끊어 읽기, 성조를 통해 시의 리듬을 형성한다.

「재별강교(再別康橋)」에서 ‘來’, ‘彩’와 같은 한 연의 끝 글자는 운을 맞춰 시의 압운을 형성한다. 이는 현대시의 리듬을 형성하는 데 압운이 여전히

28) 王力, 『漢語詩律學』, 中華書局, 2015, pp.61~70.

중요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시의 음보 구성은 전통 정형시의 2·3 음보 규칙에서 영향을 받은 동시에 자유롭게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양의 측면에서는 이 시가 정형시 평측의 격식에 벗어나 현대 중국어의 성조 강약 교체를 통해 발음의 조화를 실현한다. 따라서 정형시가 추구하는 엄격하고 동일한 운율 형식은 현대시에서 자유로워지며,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 언급한 중국 시의 리듬 인식을 통해 리듬은 오랫동안 창작 실천으로 쌓인 심미적 경험을 포함하고 한 민족 시의 전통적인 소질을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적 가치는 시를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의의에 해당한다.

이상의 중국 시 리듬 인식에 관한 논의를 통해 중국 전통 정형시로부터 현대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정형시와 현대시의 리듬 형식과 그 특성>

정형시		현대시	
리듬 형식	특징	리듬 형식	특징
압운(押韻)	동일성 규칙성	압운(押韻)	차이성 자유성
음보(頓)		끊어 읽기	
평측(平仄)		성조	

위의 표에 정리된 정형시와 현대시의 리듬 구성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전통 율격시가 리듬의 규칙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현대시는 형식적인 리듬과 의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해왔다. 당시 절구(絶句)에서 규칙화된 압운, 음보, 평측 등의 리듬 형식 요소는 현대 신체시에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계승되고 창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전통 정형시와 현대 신체시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통일적인 맥락 속에서 관계가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역시 중국 시가의 변화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의 시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대시의 리듬 표현은 전통시의 운율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만큼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 요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²⁹⁾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 활용하여 김소월 시의 리듬을 이해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리듬 인식 구조에 대해 압운 요소, 끊어 읽기 요소, 성조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의 활성화

방 띠젬(Van Tieghem)은 비교문학의 연구 영역에 대해 각각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에 문학적 형식은 비교문학의 분류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³⁰⁾ 시에서 리듬은 문학적 형식 요소 중의 하나이며 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문학 연구에서도 리듬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리듬에 대한 해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리듬을 읽는다는 온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³¹⁾.

한국문학 교육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도 이러한 비교문학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 현대시 교육에 형식으로서의 리듬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문학 교육에서의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는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능동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문학 교육 또한 학습자의 인식과 경험을 중요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³²⁾

전통적 의미에서 비교문학은 상이한 두 나라 문학이 지니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의해서 두 나라 문화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 분야를 말한다. 비교문학의 시작과 발전은 긴 역사과정을 거치며 각 나라의 문학연구를 따라 풍부하게 이루어져왔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29) 이는 본 연구의 실험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리듬 인식 구조를 확인한 결과다. 실험 진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양상은 III장에서 제시하였다.

30) 방 띠젬, 김동욱 역, 『비교문학』, 柱英社, 1975, p.23.

31) 민재원, 앞의 논문, p.29.

32) 오지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p.558.

자 한다.

18세기 말부터 일어난 프랑스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유럽의 각 나라는 독립적 문학연구를 진행하였다. 19세기에는 나라별 문학연구의 방식을 넘어 더 많은 나라 간의 문학을 비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주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에 프랑스 비교문학자 방 띠엠은 처음으로 비교문학의 이론과 역사를 전면적으로 총괄하였다. 그 후에 프랑스 학자 까레(J. Carré)는 문학연구의 방법으로서의 비교문학은 ‘문학사의 한 분야이다’라고 주장하며, 비교문학을 ‘여러 문학들에 속하는 사실들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신관계에 대한 연구이다’라고 정의하였다.³³⁾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비교문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비교문학 연구방법론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웰렉(R. Wellek)을 대표로 된 미국 비교문학자들은 서로 다른 문학 사이에 존재한 공통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반 문학(general literature)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독일 작가 괴테(J.W. Goethe)로부터 시작된 세계 문학(world literature)은 서로 다른 문학들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³⁴⁾

중국의 경우, 루쉰(魯迅), 마오둔(茅盾)과 귀모뤄(郭沫若)는 각국의 문학발전에 대해 광범위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1930년대부터는 외국 비교문학의 역사와 이론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중국의 비교문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단계를 이루었으며 ‘대화연구’,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등이 있다.³⁵⁾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비교문학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교문학연구 방법은 학문으로서의 비교문학을 중요한 관점으로 취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 교육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문학의 영향과 수용 관계에 초점을 둔 ‘비교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비영향적이고 비수용적인 현상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성을 띤 연구

33) 김학동,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4, pp.10~25.

34)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vol.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60~61.

35) 程培英, 「比較文學若干理論問題的思考」,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pp.72~75.

방법으로서의 ‘대비 연구’이다.³⁶⁾ 윤여탁(2009)에 따르면 ‘비교 연구’는 한국 문학에 영향을 끼친 외국 문학과와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이라는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며, ‘대비 연구’는 서로 영향이나 수용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다른 국가의 문학작품을 대비하거나 나아가 다른 장르와 대비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 사회, 문화, 문학에 대한 이해, 세계문학으로서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³⁷⁾

후자의 관점에서 연구한 전홍(2014)에 따르면, 대비연구에서는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탐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³⁸⁾ 또한 대비연구를 통해 작품 간의 외적·내적 관계를 확인하고, 작품이 지니는 심미적인 가치와 전통적·현대적 문화 배경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³⁹⁾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문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이 김소월 시의 리듬 이해와 감상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습관화된 반응을 고려한 기대지평의 재구성

작품을 중심에 두던 이전의 문학 이론과 달리 독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독일 학자 야우스(H.R. Jauss)의 논의는 학습독자의 문학 텍스트 이해 과정이 기대지평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이란 “수용자가 지닌 창작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⁴⁰⁾를 의미한다. 기대는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이해와 인지며, 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기대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가 작품을 접근할 때 자신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기

36) 오지혜·윤여탁, 앞의 논문, p.551.

37) 윤여탁, 앞의 논문, 2009, pp.55~56.

38) 전홍,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p.195.

39) 陳惇·劉象愚, 『比較文學概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5, p.124.

40)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7, p.32.

대지평의 속에 들어간다. 만약에 수용자의 기대지평이 작품의 기대지평과 일치하면 작품은 수용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다.⁴¹⁾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지니는 ‘기대’는 주로 압운적인 리듬 형태가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리듬이 운율과 소리의 반복, 즉 압운을 통해 이루어진 「초혼」과 비교 대상으로서 중국 시인 원이퇴의 「홍촉(紅燭)」을 통해 압운에 대한 ‘기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p>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p> <p>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p> <p>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앓은 산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p> <p>- 「초혼」의 부분</p>	<p>紅燭啊! 這樣紅的燭! 詩人啊! 吐出你的心來比比, 可是一般顏色? 紅燭啊! 是誰制的蠟——給你軀體? 是誰點的火——點著靈魂? 爲何更須燒蠟成灰, 然後才放出光來? 一誤再誤; 矛盾! 衝突!</p> <p>- 「홍촉(紅燭)」의 부분⁴²⁾</p>
--	--

41) 위의 책, p.33.

42) 원이퇴 「홍촉(紅燭)」의 부분

紅燭啊!	붉은 촛불이여!
這樣紅的燭!	빨간 촛불이여!
詩人啊!	그리고 시인이여!
吐出你的心來比比,,	네 마음을 드러내 비교해 보라

「초혼」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1925)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김소월의 시는 한국 전통 정형물에 토대를 두는 동시에 전통적인 율격에 구속되지 않는 한국 시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함께 보여준다.⁴³⁾ 「초혼」에서는 시행을 종결하는 서술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압운의 효과를 넘으로써 시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결어미의 활용이 압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2연 2행의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와 4연 4행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등에서 나타나는 “-구나”, 3연 4행부터 4연 2행까지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로 반복되는 서술어 “-노라” 등과 같이 서술어의 반복과 압운의 형식이 감정 표출을 돕고 있다.

한편 「홍촉(紅燭)」은 원이퇴의 시집 『홍촉(紅燭)』(1923)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시인 원이퇴는 중국 고전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격 질서를 새롭게 변용하여 현대시의 음악미(音樂美)와 회화미(繪畫美), 그리고 건축미(建築美)를 강조한다. 음악미는 ‘음절(音節)’의 형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회화미는 ‘사조(辭藻)’를 통해 이루어지고, 건축미는 ‘구(句)와 절(節)의 가지런함’을 통해 구조적인 미를 살린다.

이 시는 현대시의 자유로운 형식 속에 압운을 맞추어 격렬한 리듬을 형성한다. 시에서 “吐出你的心來比比(네 마음을 드러내 비교해 보라)”와 “給你軀體(누가 밀랍으로 너를 만들었는가)”중의 ‘비(比, bi)’, ‘티(體, ti)’는 ‘i’의 각운을 맞추고 있으며, “矛盾! 衝突!(모순이다! 충돌이다!)”과 “不誤, 不誤!(잘못되지 않았다! 그른 것이 아니다!)”중의 ‘투(突, tu)’, ‘우(誤, wu)’는 모두 각운 ‘u’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인이 독자로 하여금 운각의 단조로움

可是一般顏色?	같은 색깔인가?
紅燭啊!	붉은 촛불이여!
是誰制的蠟——給你軀體?	누가 밀랍으로 너를 만들었는가?
是誰點的火——點著靈魂?	누가 불을 붙여 네 영혼을 불타게 하였는가?
為何更須燒蠟成灰,	너는 왜 네 몸을 태워 재가 되고
然後才放出光來?	그 뒤에 비로소 빛을 내는가?
一誤再誤;	그것은 잘못되고 또 잘못된 일이다!
矛盾! 衝突!	모순이다! 충돌이다!

43)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pp.107~111.

을 피하여 피로감을 해소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굳은 의지와 극한에 달한 심정을 ‘홍초’에 담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복된 영탄과 압운을 동반한 강렬한 어조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중국의 전통적인 율격과 압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식구조 속에서 정제된 의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압운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중국 전통 시에서는 시행의 끝에서 동일하고 규칙적인 음절이 조용하면서 반복된다. 이에 비해 한국 시에서는 어휘나 형태소의 단순한 반복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⁴⁾ 부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상 조사나 접미사가 각운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각운이라고 하기 힘든 것⁴⁵⁾이기 때문이다. 김대행은 시의 압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기하였다.

압운은 음절의 식이 강한 언어에서 발달한 것에 비해 우리의 언어구조는 한 문장이나 문절에서 끝음절의 음상이 비약하기 때문에 압운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⁴⁶⁾

다른 한편으로 한국 시에 압운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 권혁웅의 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음보가 아닌 개별 음절, 어절, 문장, 나아가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언술 전체에서 드러나는 음운의 반복은 압운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어가 압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⁴⁷⁾

이상의 논의들을 보면 한국 시에서 압운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44) 이해원, 앞의 책, pp.14~15.

45) 김대행, 「압운의 일반론적 고찰 - 한국 시에 있어서의 가능성 검토로서」, 『국어교육』 vol.23, 한국어교육학회, 1975, pp.66~68.

46) 김대행, 「압운론」, 『한국 시가 구조 연구』, 삼영사, 1982, pp.57~58.

47) 권혁웅, 「한국현대시의 운율 연구」, 『어문논집』 vol.57, 민족어문학회, 2008, p.236.

는 한국 시의 복잡한 문제보다는 그 시를 읽는 중국인 학습자의 습관화된 리듬 인식의 형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시를 읽을 때 시의 고유한 리듬 효과를 압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이러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 시에 대한 리듬 이해 원리를 구안하고자 한다.

김소월 시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반복에 해당하는 것은 중국 시의 압운 형태와 다르기는 하지만 리듬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 시에서는 동일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발생한다. 이러한 리듬 현상은 엄밀히 말해서 압운이라 할 수 없지만 압운과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한·중 현대시를 비교해보면, 이들은 반복되는 어미와 어휘로 시의 압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리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시에 나타난 이러한 특별한 리듬 형태는 음운 차원의 동일성과 어휘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동일성을 압운적인 표현으로 간주한다.⁴⁸⁾

야우스(H.R. Jauss)에게 수용이란 작가의, 작품 당대의, 수용자의 기대지평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용자가 저자의 문학관을 밝혀야 그의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지평의 재구성을 통한 수용은 수용자의 입장과 견해, 성향 등을 이루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야우스는 문학 텍스트의 수용에서 이 기대지평의 재구성을 전제로 하며, 작가, 작품, 독자의 기대지평이 재구성되고 이들의 지평이 융합될 때 비로소 작품의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어서 작품의 수용은 구체적으로 지평의 전환(Horizontwandel)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평의 전환이란 이미 주어진 기대지평과 새로운 작품의 출현에서 생겨나는 ‘거리감’이 인식됨으로써, 즉 새로운 작품이 일단 이루어진 경험을 부정하거나 의식화함으로써 지평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며, 이때의 거리를 심미적 거리(aesthetic distance)라고 한다. 이렇듯 야우스는 한 작품의 수용은 지평의 재구성, 지평

48) 이는 본 연구의 실험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III장에서 제시하였다.

49) 김정균, 「수용미학과 비교문학-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6,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2, p.60.

50) 차봉희, 「현대 문예학과 수용미학」, 박찬기 외, 앞의 책, p.88.

의 전달과 전환, 지평의 융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⁵¹⁾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여 시 리듬의 수용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의 개념이 변하고 점차적으로 텍스트와 독자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독자의 능동적 역할과 기능이 강조⁵²⁾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학습자의 문학적 수용 문제는 결국 학습자의 관습화된 인식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시의 리듬과 관련한 압운 인식의 전환과 확장 과정은 시 작품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텍스트와 소통을 통한 시적 사유의 전환

현대시의 리듬 이해를 위해서는 시 작품과의 관련 하에 시의 형식을 의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³⁾ 시의 형식으로서의 리듬을 의미화하는 과정이 곧 시 감상이다. 그렇기에 리듬 이해는 결국 시의 감상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를 낭독하고 시의 분위기와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중국인 학습자가 시 이해 및 감상 과정에서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관습은 의미군에 따라 단위를 구분하고 끊어 읽는 것이다. 이렇게 끊어 읽는 과정에서 시의 중요한 리듬 요소인 박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한국어의 특징적인 자질인 띄어쓰기는 문장을 읽을 때 휴지(休止)와 같은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끈다. 이와 달리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을 읽는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하느냐는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습관이 작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휴지에 따라 읽는 행위는 문장 이해 정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⁵⁴⁾

51) 위의 책, pp.26-47.

52) 김정균, 앞의 논문, p.64.

53) 김정우, 「시 형식의 의미에 대한 시 교육적 고찰」, 『문학교육학』 vol.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250.

54) 이동은은 중국어를 읽을 때 끊어 읽기가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동은, 「중국어 끊어 읽기 교육 연구: 고등학교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를 낭독할 때 끊어 읽기는 시의 리듬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눈에 보이는 글자를 해석하는 동시에 다음 글자를 읽어 나가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글의 전체적 의미와 부분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끊어 읽기가 의미를 분절하고 융합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⁵⁵⁾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리듬과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찰은 학습자의 끊어 읽기 인식을 형성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비교 대상으로서의 중국 시인 유반농의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教我如何不想她)」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p>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오리다</p> <p>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p>	<p>天上飄著些微雲 地上吹著些微風。 啊！ 微風吹動了我頭髮， 教我如何不想她？</p> <p>月光戀愛著海洋，</p>
---	---

<p>중국어에서 소리 내어 끊어 읽기의 기능</p>	<p>-끊어 읽기는 호흡을 조절해준다. -분절과 융합작용을 통해 단일문간의 긴밀한 구성을 유지시켜준다. -끊어 읽기는 화제나 주제어를 부각시킨다. -끊어 읽기는 화자의 심리와 감정을 나타낸다. -끊어 읽기에는 강조의 기능이 있다. -끊어 읽기는 리듬을 부여해 읽기 유창성을 제고시킨다. -끊어 읽기는 읽기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끊어 읽기를 통해 문법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끊어 읽기는 중의(重義)의 발생을 막아 뜻을 분명하게 한다.</p>
--	--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8-16.

55) 임예영,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끊어 읽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2.

<p>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p> <p>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p> <p>— 「진달래꽃」 전문⁵⁶⁾</p>	<p>海洋戀愛著月光。 啊！ 這般蜜也似的銀夜。 教我如何不想她？</p> <p>—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教我如何不想她)」의 부분⁵⁷⁾</p>
--	--

인용한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1925)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시의 리듬을 고려할 때, 한국 전통 민요조에서 유래된 3음보격이 율격장치로서 활용되며, 주관적 자아를 비극적으로 표출해 내는 심리진행상 복선적 갈등을 보여주고 시의 애상적인 기조를 이루고 있다⁵⁸⁾. 김대행이 지적한 것을 보면, 이 시의 세 번째 행은 다양한 박자의 구분이 가능하다⁵⁹⁾.

한편 중국 시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教我如何不想她)」는 유반농의 『양편집(揚鞭集)』(1920)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의 형식으로서의 리듬은 중국 전통 민요 3음보의 계승과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56) 김소월, 『김소월 시집』, 청목, 2001, p.34.

57) 유반농(劉半農)의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教我如何不想她)」의 부분

天上飄著些微雲,	하늘 위 송이구름 나부끼고,
地上吹著些微風。	대지 위 산들바람 불어오네.
啊!	아!
微風吹動了我頭髮,	산들바람 불어 내 머리카락 흔드는데.
教我如何不想她？	그녀를 어찌 잊을까?
月光戀愛著海洋,	달빛이 바다를 연모하고,
海洋戀愛著月光。	바다가 달빛을 연모하네,
啊！	아!
這般蜜也似的銀夜。	이 꿀처럼 달콤한 은하의 밤에
教我如何不想她？	그녀를 어찌 잊을까?

58)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99, pp.376-377.

59)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p.32.

중국 전통 민요시의 3음보 율격은 일반적으로 각 박자의 음절수가 적고, 느리며 긴 호흡으로 이루는 음송조(吟誦調) 리듬이다. 그러나 이런 세 박자 율격은 시구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호흡이 보다 빨리 진행되는 두 박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하기 방식과 같아서 이야기조(說話調)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박자를 바탕으로 변형된 두 박자의 존재는 시의 리듬감과 감정에 보다 자유로움을 얻게 해준다.

두 시는 모두 박자의 구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감정상의 차이는 다음 1 연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 박자의 경우	말업시 / 고히 / 보내드리 / 우리다 말업시 / 고히보내 / 드리우리 / 다
세 박자의 경우	말업시 / 고히 / 보내드리우리다 말업시 / 고히보내 / 드리우리다 ⁶⁰⁾
세 박자의 경우	天上 / 飄著些 / 微雲, (하늘 위 송이구름 나부끼고) 地上 / 吹著些 / 微風, (대지 위 산들바람 불어오네) 啊! (아) 微風 / 吹動了我 / 頭髮, (산들바람 불어 내 머리카락 흔드는데)
두 박자의 경우	教我 / 如何不想她? (그녀를 어찌 잊을까)

「진달래꽃」을 네 박자로 읽는 경우에는 세 박자로 읽는 것보다 호흡의 진행에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 든다. 이는 하나의 박자를 더 사용함으로써 각 박자에서 읽을 음절의 수가 줄어들고, 각 음절들 간에 시간적 등장성을 확보하며, 또한 마지막 박자 뒤에 휴지가 길어서 작품을 읽을 때 불편함이 적기 때문⁶¹⁾이다. 세 박자와 네 박자로 읽는 방식이 다름에 따라 호흡적인 조절이 다르게 나타나 감정적인 반응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별’이라는 사건 앞에서 네 박자로 읽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세 박자는 빠르게 진행되는 호흡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정서를

60) 김대행, 『우리 시의 틀』, 문학과비평사, 1989, p.260.

61) 민재원, 앞의 책, p.40.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네 박자로 읽는 경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로 읽을 수 있겠지만, 세 박자로 읽으면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말하는 화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教我如何不想她)」는 세 박자로 읽는 경우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땅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이 슬로모션의 효과를 나타내며 학습독자에게 미적 감각을 가져오게 된다. 1 연의 끝부분을 보면 두 박자로 바뀌 호흡이 빨라지고, ‘어찌 그녀를 떠올리지 아니할수 있단말인가’라는 시인의 말 속에 그리운 사람과 나라에 대해 격렬한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세 박자의 기초에 2 박자로 연행을 이루어 작품을 읽은 독자가 화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 빼엔즈린(卞之琳)은 이런 현상에 대해 ‘참치균형율(參差均衡律)’이라고 부르며, 바로 두 박자와 세 박자의 결합과 교착이 현대시의 리듬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²⁾ 두 박자와 세 박자는 시행 사이에 장단과 높낮이의 기복과 호응을 이루고, 이것으로 형성된 여유가 있는 리듬감을 통해 결국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보여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한·중 현대시의 리듬 형성은 각각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이든 중국이든 세 박자라는 전통적 율격이 현대시의 계승과 변용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끊어 읽기에서 전통적인 율격의 특성뿐 아니라 현대시의 특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끊어 읽기 자체는 반복적인 음보에 따른 호흡의 멈춤의 문제가 중요하다. 끊어 읽기를 통한 시의 리듬과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것은 끊어 읽는 방식이 정확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끊어 읽기를 통해 시의 심미적인 가치를 보이느냐이다.⁶³⁾

62) 卞之琳, 「哼唱型節奏(吟調)和說話型節奏(誦調)」, 『作家通訊』 vol.9, 1954.

63) 노철, 앞의 논문, p.276.

3) 경험 구조와 상호 작용을 통한 인식의 확장

김대행은 시가 압축된 형식을 지닌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운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해·체계화, 나아가 작품 속에서의 실현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⁶⁴⁾ 한국어교육 중 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의 운율을 학습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자 스스로 분석하여 개념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선형적인 리듬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현대시 리듬에 대해 능동적인 이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되살려 시의 리듬을 이해하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 속의 리듬이 자신이 경험한 리듬과 교집합이 생기게 되면 주체적으로 인식 대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야우스(H.R. Jauss)가 주장한 미적경험(aesthetical experience)은 바로 독자의 경험지평과 작품의 경험지평이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일어나게 된 내면화의 공명을 뜻한다.⁶⁵⁾ 이런 수용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전한 의미가 바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최대한 되살려 시를 읽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적 지식이란 문학에 대한 ‘존재론적 지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것은 구성주의적 동향을 바탕으로 한 문학교육론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문학교육에서처럼 문학에 대한 ‘존재론적 지식’을 교사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형태’를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학습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⁶⁾ 이러한 경험적 지식의 활용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외국 문학 작품과 공유하는 접점을 형성하게 되고, 경험지평 또한 확장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시를 읽을 때 흔히 동원하는 경험적 지식은 전통 시가에서 유래된 성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조는 중국 고전 시의 음률 규칙인 평

64) 김대행, 앞의 책, 1984, p.11.

65) 이유선, 「작품의 수용과 영향, 독자의 능동행위」,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p.122.

66)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pp.196~197.

측(平仄)에서 변형해오고 당시(唐詩)의 사성 발음을 근거로 하는 발음과 어감이다. 평측(平仄)은 음의 장단과 높낮이(高低)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당대의 율시나 절구에서는 성조의 배합과 운용을 엄격히 하였으며 성조를 운문의 격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⁶⁷⁾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이런 운율 규칙을 오랜 시간동안 익혀오고 성조의 높낮이와 장단에 대한 직각적이고 자각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해왔다.⁶⁸⁾

현대시 읽기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어병음 성조 읽기를 통해 높낮이 흐름에 따라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의 감정을 가늠한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시 감상 경험을 가지고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한국 시 속의 리듬 표현에 성조 의식을 붙이는 무의식적인 행위가 발생한다.⁶⁹⁾ 성조 현상이 없는 한국어에 상송고저의 억양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는 한국 시의 선율을 느끼고 한국 현대시를 노래하듯이 읽을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가 시를 읽어내는 과정은 바로 자신의 경험구조와 인식 대상 간에 상호 작용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시에서 성조가 멜로디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시를 시답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성조 인식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시에 접근할 때 한국 시의 리듬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김소월의 「산유화」와 비교 대상으로서 중국 시인 쉬즈모의 「재별강교(再別康橋)」를 살펴보도록 한다.

산에는 꽃 피네	輕輕的我走了,
----------	---------

67) 李新魁, 박만규 역, 『중국 성운학 개론』, 대광 문화사, 1990, p.16.

68) 성조의 변화와 평측(平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	평성	음평(1성) : 수평조 (ˊ) 양평(2성) : 오름조 (ˊ)
측	상성 거성 입성	상성(3성) : 내리 오름조 (ˊ) 거성(4성) : 높 내림조 (ˋ)

심소희, 「한국인이 발음하는 중국어 성조의 문제와 개선」, 『중국어문학지』 vol.6, 중국어문학회, 1999.

69) 이는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성조 인식 작용 양상을 조사할 때 나타난 결과이다.

70) 쉬즈모(徐志摩)의 「재별강교(再別康橋)」의 부분

<p>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p> <p>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p> <p>(중간 생략)</p> <p>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p> <p>— 「산유화」의 부분</p>	<p>正如我輕輕的來； 我輕輕的招手， 作別西天的雲彩。</p> <p>那河畔的金柳， 是夕陽中的新娘； 波光裡的豔影， 在我的心頭蕩漾。</p> <p>(중간 생략)</p> <p>悄悄的我走了， 正如我悄悄的來； 我揮一揮衣袖 不帶走一片雲彩。</p> <p>- 「재별강교(再別康橋)」의 부분⁷⁰⁾</p>
---	--

<p>輕輕的我走了， 正如我輕輕的來； 我輕輕的招手， 作別西天的雲彩。</p> <p>那河畔的金柳， 是夕陽中的新娘； 波光裡的豔影， 在我的心頭蕩漾。</p> <p>(중간 생략)</p> <p>悄悄的我走了， 正如我悄悄的來； 我揮一揮衣袖 不帶走一片雲彩。</p>	<p>살며시 내가 왔듯이 살며시 나는 떠나간다. 나는 살며시 손을 흔들며 서쪽 하늘의 구름과 이별한다.</p> <p>강가의 금빛 버들은 석양 속의 새색시여라. 반짝이는 물결 속의 아릿다운 그림자 내 마음에 물결을 어네.</p> <p>살며시 내가 왔듯이 살며시 나는 떠나간다. 나는 옷소매를 털어내며 구름 한 조각도 가져가지 않는다.</p>
--	---

「산유화」는 『진달래꽃』(1925)에 수록되어 있는 4행 4연으로 이루어진 김소월의 시로서 리듬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산유화」는 ‘꽃이 피네’로 시작하여 ‘꽃이 지네’로 귀결됨으로써 시의 리듬적 반복을 통해 서정적인 한 주기가 완성되는 것을 표현하고, 독자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이 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네’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감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2004)는 조사 ‘에’가 ‘산’과 결합하여 음성으로 실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네’가 시의 반복과 대립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⁷¹⁾ 시행 배열의 측면에서 이 시는 반복과 대립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음성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반복과 대립의 구조는 그 자체로 시의 리듬감을 형성한다.⁷²⁾ 시에서 반복된 ‘산에, 산에’ 시어는 공간적으로는 독자에게 광활한 상상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음성적으로는 유장한 어조로 리듬을 형성한다. 그리고 뒤에 ‘피어 있네’라는 감탄 표현과 함께 리듬의 강약과 장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유장하면서도 강한 소리의 기복 교착(起伏交錯)으로 노래와 같은 선율을 가지게 되고 성조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현대시 대표작품 「재별강교(再別康橋)」는 쉬즈모의 『맹호집(猛虎集)』(1928)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시는 ‘살며시 온다’로 시작하고 ‘살며시 간다’로 끝맺는 것으로 수미상관의 반복적 리듬감을 형성한다. 비록 같은 ‘살며시’라는 어휘로 구성되지만 ‘온다’와 ‘간다’ 성조상의 차이로 인해 감정을 다르게 드러낸다. 또한 같은 모음 ‘아’를 가지는 글자로 행을 종결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의미심장의 미감을 이루고 있다. 시미(詩美)를 강조하는 쉬즈모는 소리의 고저기복과 장단교착의 변화를 통해 시의 음악미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음악미는 언어의 속성과 시적 화자의 내면세계, 즉 내재적인 정서 간의 공진(共振)으로 자아내는 것이다⁷³⁾. 현대시의 성조는 전통시가의 평측(平仄) 운율규칙의

71) 김정우는 ‘-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산에는 / 꽃피네 / 꽃이피네] / [갈 봄 / 여름없이 / 꽃이피네]
[산에 / 산에 / 피는꽃은] / [저만치 / 혼자서 / 피어있네]
[산에서 / 우는 / 작은새요] / [꽃이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 꽃지네 / 꽃이지네] / [갈 봄 / 여름없이 / 꽃이지네]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65.

72) 위의 논문, p.65.

73) 駱一禾, 『駱一禾詩全編』, 上海三聯書店, 1997, p.842. 駱一禾가 시의 음악성에

전승과 발전의 결과이다. 이것은 시가 언어로 구성되었고, 언어 형식의 변용으로 인해 현대시가 현대인의 말하기와 쓰기 방식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표현 자체를 독자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구성’ 속에서 발견된다.”⁷⁴⁾고 할 때, 시 텍스트의 중요한 ‘구성’의 측면은 위와 같이 한국 시의 장단과 강약적인 리듬은 중국 시의 성조 표현과 서로 구별되면서도 또한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

시는 어휘를 통해 그 의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어휘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울격, 압운 등의 리듬적 요소들을 통해 독자에게 무언가를 함께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독자는 시를 읽을 때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등에 기초하여 시에 의미를 부여해나간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는 시의 형식적 효과에 대한 인식 주체이자, 시의 내재된 미적 효과를 감지하는 감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외국 문학을 통해 타문화를 체험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리듬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리듬 인식을 통한 이해 능력 신장

한국 현대시 이해의 주체로서 외국인 학습자는 사유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이해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這是一個語言的算度與內心世界的時空感，怎樣在共振中形成語言節奏的問題，這個構造紛紜疊出的意象帶來秩序，使每個意向得以發揮最大的勢能又在音樂節奏中互相嬗遞，給全詩帶來完美。自由體詩是一種非格律但有節奏的詩，從形式慣例到‘心耳’，它訴諸變化但未被淘汰，而是藝術成品的核心標誌之一。”

74) 김태옥, 「문학매체로서의 언어」, 『영어영문학』 vol.32, 한국영어영문학회, 1986, p.910.

다. 외국인 학습자는 목표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자국어 언어체계와 비교하며,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끌어와서 인식 대상에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 인식을 그 편향은 최소화하고 목표어 문학 텍스트 이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학습자 자신의 선행 인식에서 비롯한다. 학습자는 시를 해석하는 가운데 자신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대상이 텍스트 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동적인 상상과 의미 부여를 통해 대상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⁷⁵⁾ 이는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미확정성의 자리(Unbestimmtheitsstelle)’,⁷⁶⁾ 또는 ‘빈자리(Leerstelle)’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인 텍스트의 ‘구체화(Konkretisation)’에 상응한다.

수용미학자인 이저(W. Iser)가 말하는 구체화란 실제 세계를 작가가 언어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텍스트의 허구성을 독자의 ‘상상화(Imaginieren)’를 통해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⁷⁷⁾ 여기서의 상상화는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독자가 작품의 여백을 메워가는 의미화 과정을 강조한다.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리듬 인식은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고 인식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기대지평을 재구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인식을 활용하여 시 감상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 상상만을 중시하게 될 때, 인식의 결과가 자의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의 선행적 인식이 시 텍스트의 구조나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활성화된다.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시 읽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학습자와 텍스트 간의 논리적인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교육에서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질

75) 박주형,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46.

76) W. Iser,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p.289.

77) 차봉희, 「독자반응비평이란?」, 차봉희 편역,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p.61~62.

필요가 있다.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구체화 역시 텍스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와 독자의 상호작용⁷⁸⁾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 리듬에 대한 독자의 주체적 해석과 텍스트 내적 문맥 간의 조응을 중시하는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가 구체화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2) 개방적 수용자로서의 시 독자 양성

문학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정제된’ 언어 구조물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 주며, 결국에는 ‘지식의 형식’이 되어 언어 능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⁹⁾ 리듬 이해 교육은 학습자의 개방적인 문학 사고력의 양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그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일방통행만은 아니고, 독자는 시와 끊임없이 소통한다.⁸⁰⁾ 시와 독자 간의 이러한 대화는 먼저 형식으로서 시의 리듬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현대시를 배우는 학습자는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시적 지각을 확장하고 또 이를 새롭게 갱신해간다.

다만 고정적인 리듬 인식과 새로운 인식 대상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점은 리듬의 인식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독자의 심미적 경험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 형식으로서의 리듬이 갖추는 의미를 도출하는 데 머무르는 시 읽기 활동은 리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미만을 중시하게 될 뿐이다. 리듬을 출발점으로 삼는 현대시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문학 지식에 대한 이해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적 능력과 시적 사고력 양성, 개방적인 문학 수용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 리듬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은 시의 형식적·의미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하며, 리듬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상이 이루어지고 미학적 성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78) W. Iser,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작용」, 차봉희 편역, 앞의 책, 1993, p.231.

79)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p.183.

80) 이성호, 『시와 독자의 대화』, 범우, 2013, p.21.

나가야 한다.⁸¹⁾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개방적인 문학 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현대시 리듬 이해 교육은 리듬이 텍스트를 통해 드러내는 현상을 독자가 연계관계의 탐구를 통해 지각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심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의 성격을 띤다. 로젠블랫(L. M. Rosenblatt)에 따르면 심미적 독서는 정보 추출적인 독서와 달리 텍스트를 통해 얻어질 정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 수행되어야 할 행동들보다 “독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⁸²⁾ 즉, 심미적 독서는 시적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는 리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독자에게 환기시키는 재기술된 실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의 연행 활동에 상응한다.

심미적 독서는 그것이 갖는 주관적인 성향으로 인해 시 해석 활동보다는 시 감상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⁸³⁾ 시는 음성적 특질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학 장르⁸⁴⁾이기 때문에, 소리 내서 시를 읽는 독자의 음성적 보완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시의 외재적인 형식은 독립된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를 표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시의 리듬은 독자에 의해 음성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의미에 관여하는 모든 음성적, 비언어적 자질이다.⁸⁵⁾ 따라서 독자는 리듬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⁸⁶⁾ 이와 같은 문학 활동은 지적 체험으로서 학습자의 시적 사유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사고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81) 김정우, 「시 형식의 의미에 대한 식 교육적 고찰」, 『문학교육학』 vol.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p.250.

82) L. M. Rosenblatt, 김혜리·엄혜영 공역, 『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이론』, 한국문화사, 2008, p.43.

83) 박주형, 앞의 논문, p.47.

84) L. M. Rosenblatt, 앞의 책, p.18.

85) 정정순, 「현대시 교육에서의 운율 교육 내용 재설정 연구: 운율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vol.4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p.221.

86) 이상아, 「운율 교육에서 현대시 읽기 방법의 모색」, 『독서연구』 vol.42, 한국독서학회, 2017, p.95.

(3) 주체적 해석을 통한 문학적 경험 확장

단순 지식 중심의 시 교육은 학습자를 주체적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고와 감상의 능동성이 부족한 수동적인 독자로 만든다. 이는 현대시 교육에 수용과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기계적인 시 해석 방식을 피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과제⁸⁷⁾를 상기시킨다. 결국 학습자를 진정한 독자로 나서게 하는 것이 시 교육이 중요시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⁸⁸⁾ 특히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를 학습하는 데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에 주목하여 현대시 읽기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용과정과 반응양상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사고방식의 전환에 중점을 두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적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시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독자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문학적 이해를 도출한다. 독자(해석자)의 경험, 상황, 선행 지식과 같은 것들은 올바른 이해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해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지평이나 전망이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⁸⁹⁾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시 텍스트 해석 활동은 학습자의 자기 문학적 정체성의 확인 과정이자, 새로운 세계와의 교섭을 통한 문학적 경험의 확장과 자기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외국 문학 작품의 학습에서 학습자의 문학적 사유는 목표어 문학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어 문학을 해석하고 동시에 목표어 문학의 일정 부분을 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문학적 사유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문학 영역은 목표어 문학을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적 사유의 정합성을 이루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변신을 꾀하면서 발전했다.⁹⁰⁾

87)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p.36.

88) 위의 책, p.37.

89) G. Warnke, 이한우 역,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1999, p.149.

90)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71.

한국 현대시에서 형식으로서의 리듬은 문학적 표현력을 통해 계승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적 고유한 문맥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 현대시를 배울 때 시에서 무엇을 읽어내는가의 문제와 시를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 모두 중요하다. 한·중 현대시 비교학습 활동에서 중국 시와 다른 한국 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시 자체의 문학적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일어나는 문학적인 본질로 구성된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비교학습 과정은 문학 영역 간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화하며, 이어서 문학적 경험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다.

III.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양상

리듬은 시 텍스트의 형식적 장치로서 시 내적 정서와 주제를 담아내는 틀이며 미적인 내용을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현대시를 이해할 때 리듬 인식의 실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압운, 끊어 읽기, 성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어 시 텍스트를 읽을 때, 먼저 시 텍스트 형식으로부터 접근한 다음에 시의 의미와 정서를 파악한다. 자신의 선행적·경험적 인식을 동원하고 목표어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어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독자로서 한국 현대시와 만나면서 자신의 리듬 인식을 동원하고 한국 시 텍스트 속의 리듬을 인식하는 데 연계 관계나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리듬 인식을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 텍스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에 접근했을 때의 반응과 비평의 구체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자의 경우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 읽기 활동에서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 텍스트의 리듬을 인식하고 시를 감상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수집된 학습자의 감상문은 추행법(追行法)¹⁾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장 조사는 예비 실험, 두

1) 추행법은 텍스트의 문장 하나하나 혹은 문장 다발들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텍스트가 기

차례의 본 실험, 그리고 검증 실험으로 실시하였다.

(1) 예비 실험

예비 실험은 한국 S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은 전원 고급 수준이었다. 예비 실험에서는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주제 인터뷰를 통해 현대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예비 실험 인터뷰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장 좋아하는 중국 현대시가 무엇인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시구가 있는가?
- ② 왜 이 시를 저절로 떠올릴 수 있는가? 어떤 원인으로 이 시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됐는가?
- ③ 중국 현대시에서 나타난 시정(詩意)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정은 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 ④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현대시가 무엇인가? 중국 시를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한국 현대시가 있는가?
- ⑤ ‘OOO’은 가장 익숙한 한국 시라면 많이 공부할 것 같은데, 왜 앞에 언급한 중국 시처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⑥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부정적 답)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국 현대시를 배울 때 거부감이 생겨 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⑦ 중국과 한국 현대시에서 나타난 리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⑧ 리듬과 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 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현대시 학습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한·중 현대시 간 이해의 차이와 원인, 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묻

술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알려주는 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Van Manen, Max.,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안규남 공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1994, pp.128-132. 참조.

는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학습자 15명 가운데 78%(11명)가 한국 현대시 학습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학습자들은 ④번 문항과 ⑥번 문항에 대해 ‘한국 시가 낯설어 보이고 한국 시의 리듬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나, ‘한국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예비 실험의 결과를 보면 비록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중국인 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주체적으로 한국 시의 리듬을 인식하고 시에서 감동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 시의 리듬에 대한 거리감과 해석 방법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차 진단 실험

1차 실험은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실험은 진단 단계로서 한국 현대시 리듬 인식 양상과 이를 활용한 시의 수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김소월 시의 리듬 형식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리듬 유형에 따라 읽기 학습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후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시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리듬감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리듬 인식의 형성 단계는 한국 현대시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현대시 텍스트의 리듬 표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리듬 형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듬의 특징을 중심에 두고 진단 실험을 설계하였다.

1차 진단 실험과 추후 인터뷰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차 실험을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감상과 인터뷰 내용	진단 문제점
[실험 I -03-IA-진달래꽃]	문제점 1: 학습자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p>T: 왜 이 시를 ‘죽어도 아니/눈물 흘리 오리다’ 이런 식으로 끊어 읽었어요?</p> <p>S: 중국어로 하면 ‘即使不死(죽지 않아도)’의 뜻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었어요.</p>	<p>바뀌 생각하면서 중국어 어휘의 의미에 따라 한국어로 된 시 이해를 시도한다.</p>
<p>[실험 I -07-PA-산유화]</p> <p>시를 시라면 내용상은 물론 짧은 시어 안에 충족한 감정을 담겨야 하고, 형식상은 리듬감이 잘 드러나야 시의 맛이 난다고 생각한다.</p>	<p>문제점 2: 학습자가 한국 시를 읽을 때 보통 중국 시와 비슷한 압운이나 리듬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를 읽는다.</p>
<p>[실험 I -12-PA-초혼]</p> <p>시의 리듬감이 다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강한 어조와 약한 어조가 교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중국 시의 평(平)과 축(仄)같아 보인다.</p>	<p>문제점 3: 학습자는 리듬의 강약 효과를 중국 전통 시가의 억양 특징과 연결하여 생각한다. 중국 시의 리듬 형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모국어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목표어 문학작품을 받아들인다.</p>

1차 진단 실험은 먼저 음보가 시의 리듬 특징으로서 나타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12명 가운데 시의 리듬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가 83%(10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명의 학습자는 시를 3음보로 끊어 읽었지만 리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는 한국어 스키마와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애매모호하게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김소월 시에서 민요조 리듬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산유화」의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사에서 시의 리듬을 느끼게 된 학습자의 비중은 67%(8명)를 차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의 리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8명 중 3명은 시의 3음보를 맞추었고 5명은 종결어미의 반복이 시의 리듬을 구성한다고 인식했다. 「산유화」의 리듬을 느낀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아예 리듬감이 느껴지지 못한다.’나, ‘리듬을 찾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감상문을 작성한 학습자도 34%(4명)에 달했으

므로, 학습자들이 한국 시의 리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압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초혼」의 학습 활동에서 58%(7명)의 학습자들이 ‘시의 리듬감이 느껴진 것 같다.’로 답하였지만, 리듬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나머지 학습자들은 ‘시의 리듬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리듬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의미화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진단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리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듬에 대한 선입견이나 습관화된 인식이 한국 현대시 파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를 접할 때 자신의 고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 리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 정서와 의미 파악에 매우 유의미한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의 습관화된 반응을 비교 문학교육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의 리듬감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어서 시 수용 효과의 깊이를 실현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3) 2차 실험

2차 실험은 II장에서 제시한 한·중 현대시 비교문학연구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1차 진단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문학을 교육 방법으로 도입하였고,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하여 시 읽기에 활용하는 것이 시를 감상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김소월 시 3편의 리듬적 특징에 각각 대응하는 중국 시 작품 3편을 선정하였고, 중국인 학습자 28명을 3개 조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2차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차 실험조사 활동 내용

수업 내용	한·중 비교문학교육 방법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리듬 이해 수업 진행 및 수업 감상문 작성	
제시 작품	① <진달래꽃>- <날더러 어찌 그녀를 잊으라 합니까 (教我如何不想她)> ② <산유화>-<재별강교(再別康橋)> ③ <초혼>-<홍촉(紅燭)>	
수업 목표	한·중 현대시 비교문학적인 이해를 통해 양국 현대시 리듬적 이동성을 해명하고, 한국 현대시 리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도록 한다.	
수업 단계	리듬 인식 형성 단계	(1) 한국 시 텍스트를 소리 내어 낭독해보기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 내어 읽기 (2) 자신이 이렇게 낭독하는 이유, 낭독할 때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하기 (3) 중국 시 텍스트 낭독하기, 자신이 이렇게 낭독하는 이유, 낭독할 때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하기 (4) 한·중 시 텍스트의 리듬 비교해보기
	리듬 인식 명료화 단계	비교문학적 이해를 위한 교사 질문 단계
		학습자 간의 토의하기 및 발표하기 -소그룹 토의 -자발적인 발표 토의 내용: -한·중 현대시에 나타난 리듬 표현이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둘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리듬이 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리듬 인식 심화 단계	수업 감상문 쓰기

감상문을 쓴 후에는 학습자들이 비교문학적 읽기 활동 전후 한국 시 리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백분율로 표시하는 보충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총 84편의 감상문을 수집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국 시의 리듬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응답한 리듬 인식의 변화를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비교학습활동 전후 리듬 인식의 변화

시 텍스트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활동 전	활동 후	활동 전	활동 후	활동 전	활동 후
평균값	9.42%	72.85%	12.85%	75.71%	13.85%	74.26%
최댓값	15%	85%	25%	85%	25%	80%
최솟값	2%	60%	5%	70%	8%	65%

위의 표를 보면 비교학습활동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시를 읽으면서 선행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일정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학습활동 전에는 학습자들의 인식이 평균적으로 10%며, 그 후에는 70% 정도의 인식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언어 지식의 부족이나 시 읽기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시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이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언어 지식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문학적·문화적 스키마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를 학습할 때, 리듬에 대한 인식이 시의 전체적인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리듬 인식은 자신의 모국어 문학 배경지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습관화된 인식 방식은 목표어 텍스트를 접근할 때 방해와 촉진의 효과를 모두 일으킨다.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시 해석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해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남긴다.

(4) 검증 실험

이어서 진행된 검증 실험은 한국 S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증 실험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구체화 양상과 이를 통해 도출된 교육적 과제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을 설계하였다. 교육 내용은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과정’,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절차 및 세부 활동으로 ‘작품 비교를 통한 리듬 인식 활성화’, ‘발문 조정을 통한 리듬 인식 유형화’, ‘시 낭독 과정을 통한 리듬 인식 구체화’, ‘압운·음보·강세를 활용한 시 창작’으로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실험 조사는 3차시로 구성하였다. 세부 활동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설계되었다.

〈표 3〉 3차 검증실험의 차시별 세부 활동

구분	내용	단계별 초점
1차시	(1) 대상 한국 시 텍스트 어휘, 문법 등 시적 표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2) 먼저 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한국 시를 읽은 후 중국 시 텍스트 제시 (3) 중국 시 텍스트 리듬 인식 유형화를 위해 교사 발문 (4) 한·중 시 텍스트의 리듬을 연관시켜 비교, 한국 시 리듬에 대한 인식 유형화를 위해 교사 발문	비교문학을 통한 학습자의 리듬적 스키마 활성화 및 대상 한국 시에 대한 리듬 인식 형성
2차시	(1) 리듬을 고려하면서 대상 한국 시 낭독 (2)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낭송 음성 자료 제시 (3) 자신의 낭독 과정과 비교하고 리듬적 차이점 발견	형성된 리듬 인식 의미화와 시 이해의 조정

	(4) 대상 한국 시 다시 낭독하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 이해해보기	
3차시	(1) 토의 모둠 편성, 교사의 발문 제시 (2) 모둠 토의 및 결과 정리 발표 (3) 한국 시의 리듬 특징을 활용하여 모방시 쓰기 활동 수행 (4) 시 창작 결과 발표 및 평가	리듬 인식의 내면화 및 이해의 심화

이 장에서는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에 접근할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이는 반응과 비평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자의 경우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IV 장에서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한국 현대시 이해를 위한 리듬 인식의 양상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긍정적 인식 경향과 부정적 인식 경향이 시를 이해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압운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하는 압운 인식을 가지고 한국 시 텍스트에 접근하는 양상이다. 이 양상에서는 학습자들이 중국 시의 압운 형식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대상 한국 시 텍스트에서도 같은 형식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끊어 읽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학습자가 시에 접근하는 습관을 반영하며, 끊어 읽는 결과에 따라 시를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학습자가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에 성조를 부여하고 강약을 이루면서 시를 읽는 양상이다. 학습자가 시의 정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주체적으로 어구에 강약적인 성조를 붙이는 것은 시에 감정 이입을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한국과 중국의 시적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억양의 차이로 인한 문학적 충돌과 화해를 거치게 된다. 충돌이든 공명이든,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작품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문학에 대한 다면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1) 압운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시에서 압운은 동일한 소리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리듬감으로, 율격과 함께 운율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음운론적 측면에서 압운은 중국 시의 운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정형시에서는 압운이 시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고 음성적으로 시의 리듬감을 구현한다. 현대시에서는 산문화 경향이 강해지는 동시에 압운이 전통시보다 약화되었다. 그러나 중국 시 변천의 역사에서 리듬이 시의 본질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며, 압운이 리듬을 생성한다는 것 또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압운법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한국 시를 접할 때, 압운에 대한 자신의 고정적인 인식 때문에 확장된 반응과 한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배경지식과 습관을 바탕으로 보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사물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깊이를 좌우한다.

1) 관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의 실현

시 리듬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시 형식적 측면에 대한 관용적이고 고정적인 배경지식이라 할 수 있다. 배경지식은 이미 수립된 이해 방식 또는 경험 구성의 방식이 새로운 사상(事象)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데 쓰인다. 형식적 배경지식은 이런 구성된 인식 속에 사

물의 외재된 구조에 대한 인지를 지향한다. 현대시의 형식적인 요소에 있어서 리듬은 발화(utterance)를 통해 파동을 만들어 정서와 의미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시의 전체적인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²⁾ 이에 대해 형성된 인식이 바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적인 배경지식이며, 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지식의 넓이를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시의 형식적인 리듬을 인식할 때 자신의 압운 인식을 주로 활용하여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 요소를 설명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시의 특징인 압운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가 자신의 뿌리 깊은 시적 사유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를 통해 한·중 시 텍스트 비교 이해 과정에 어떤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학습자들이 대상 한국 시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다음 두 시의 비교와 그에 대한 2차 텍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실험 II-25-초혼]

T: 자 그러면 시를 읽으니 시의 리듬은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S: 시의 리듬이 매우 강하고 반복된 리듬 표현이 많아요.

T: 이시는 리듬적이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읽은 시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S: 이 시는 다른 두 편의 시에 비하면 ㉠매우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리듬감이 훨씬 강해요.

T: 리듬감이 강하다는 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S: 이 시에서 “이름이여”와 같이 ㉡시어의 끝에서만 나온 감탄표현이 시의 리듬을 형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의 ㉢3연과 4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나온 “-노라”와 “-구나”는 모두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종결어미인데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낭독할 때 압운이 느껴져요. 이는 ㉣한국식의 압운이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읽으면 시의 슬픈 미감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느낌

2) 노철, 「시 감상교육에서 운율의 활용 연구」, 『한국시학연구』 vol.11, 한국시학회, 2004, p.270.

이 좋아요.

「초혼」은 중국인 학습자가 감상하기 어려워하는 시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나타난 학습자와의 대화 양상을 보면, 학습자가 시를 읽으면서 한국어 언어 형식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과 ㉡을 통해 학습자가 낭독의 과정에서 “이름이여”라는 감탄표현과 “-구나”, “-노라”라는 종결어미의 효과를 생각하고 리듬감을 형성하여 시의 정서에 대해 스스로 파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의 음성 성분을 시적으로 이용하여 작품에 접근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을 보면 학습자는 자신의 기존 지식에 의해 3연과 4연을 읽으면서 압운을 느꼈기 때문에 시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자가 한국어 종결어미에 대해 스스로 ㉢과 같이 “한국식 압운”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지식을 활성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식 압운”이라는 인식은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며, 자신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어 형식의 객관적인 이해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리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뒤 학습자는 시를 의미화하는 단계에 들어가 시의 정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에서 학습자는 리듬이 감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3연과 4연에서 풍부한 감정을 느끼며 시에 공감한다. “시의 슬픈 미감”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의 이해가 음성적 색조로부터 정서적 뉘앙스에까지 도달하여 텍스트를 미적 국면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실험 II-02-PA-산유화]

리듬적으로 보면 두 시는 압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시가 모두 압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두 시의 압운 상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중국 시의 압운은 비슷한 음의 반복이라 할 수 있고, ㉡한국 시의 압운은 같은 단어의 반복이다. 두 시의 압운은 다르지만 모두 ㉢시의 표현 효과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산유화>에서 “꽃이 지네”, “꽃이 피네”처럼 ‘네’의 반복은 마마치 중국어 ‘啊’와 같은 감탄사 같다. ㉣‘네’는 어구 끈의 압운감을 어느 정도로 형성해주는 동시에 시의

감정도 같은 식으로 표현해냈다.

위 학습자가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을 인식할 때 중국 시와 비교하면서 찾아낸 공통점은 압운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는 먼저 익숙한 압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시 텍스트에 접근한다. 그리고 나서 시의 이러한 압운이 중국 시와 달리 나타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활용하여 이해해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서 보듯 이 학습자는 두 시에서 압운의 음성적 표현을 발견하고 비교한다. 학습자는 한국 시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은 압운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했고, 스스로 한국 시의 압운 형식을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습관화된 인식을 활용하여 한국 시의 리듬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학습자는 두 시의 압운 형식을 비교한 후 ㉡에서 제시된 부분과 같이 한국 시의 압운은 동일한 단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국 시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한국 시와 중국 시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시의 형식적 표현의 차이점을 탐구하는 태도가 형성된다.

학습자는 친숙하지 못한 한국 시의 리듬과 배경지식을 연관 지으면서 이해의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부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시에서 ‘네’를 예시로 들면서 동일한 종결어미가 시의 표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압운이 시의 표현 효과에 끼치는 미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시를 전체적으로 해석해 나갔다. 이는 학습자의 압운 인식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의 내재된 함의와 연결하여 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에서 제시된 부분을 참고하면, 학습자는 이런 어미의 반복으로 형성한 ‘압운’이 한 어구의 끝에만 나타나면서 시의 규칙성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시의 동일한 음의 반복으로부터 더 나아가 동일한 시의 외적 형태와 내적 감정에 대한 확장적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한국 시를 이해하는 데 중국 시의 압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시의 압운이 한국 시의 이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시적 경험을 현재의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점 또한 이해의 원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압운 인식을 활성화하고 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적 표현에

대한 고정된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비교를 통한 한국 시 텍스트 이해 과정은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의 구조를 드러내며, 아직 친숙하지 못한 텍스트와 상호 작용을 통해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상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압운에 대한 익숙한 느낌을 낯선 텍스트에 적용하고 전개하여 나감으로써 인식을 심화시키고 대상의 성격을 파악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이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국어를 중심으로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태도 또한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기존 인식만을 절대시하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문학 텍스트의 낯선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대와 불일치로 인한 시적 해석의 방해

외국 문학 텍스트의 독서과정에 학습 독자와 텍스트 간의 관계는 텍스트 융합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문학 작품을 구체화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기대는 텍스트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때 외국인 학습자는 문학 작품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체적인 인식으로 인해 낯선 텍스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데, 이때 학습자가 자신의 고유한 인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수용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학습자의 입장과 기대는 외국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단, 방해, 교차 등의 반응들을 생성하게 된다.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반응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이 반응들을 통해서 현존하는 것이 된다.³⁾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실제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학습자가 인식 대상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인식이 가로막히고 중단된다.

텍스트가 학습자의 능력을 작동시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

3)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183.

우에 비로소 독서행위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된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가 고정적 스키마와 관용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텍스트를 읽는 것은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다음의 학습자를 통해 관용적인 압운 인식으로 인해 대상 간에 부정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험 II-04-PA-진달래꽃]

㉠시인가 산문인가 너무 헷갈린다. 시를 그렇게 순조롭고 낭랑하게 읽지 못했다. 물론 어려운 어휘와 문법이 시를 읽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이 시를 낭랑하게 못 읽는 원인이 아니다. 나는 ㉠시를 읽자마자 시의 운율감을 느껴 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읽어봐도 못 느꼈다. 그래서 시에 대해 억지로 흥미를 가지는 것보다 그냥 ㉠시의 내용과 주제 등과 같은 문학적 지식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다.

추가 인터뷰 질문:

T: 처음에 이 시에 기대한 운율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S: 압운과 같은 거, 우리가 시를 쓸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압운이잖아요. ㉠압운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 시의 재미가 달라져요. 시의 어구마다 압운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가 더 완벽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중국 시의 리듬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저한테는 매우 어려운 시입니다.

위 학습자는 한국 시 리듬을 이해할 때도 자신의 압운 인식에 속박되어 있으며, 자신의 압운 인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한국 시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먼저 ㉠부분을 보면 학습자가 한국 시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인식은 시의 산문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산문에 비하여 시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리듬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머릿속에 뿌리 내린 압운 인식으로 인해 학습자가 새롭고 낯선 한국 시를 이해할 때 전상(前像)과 후상(後像)⁴⁾ 사이에 분규가 일어났으며,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선택

4) 차봉희, 앞의 책, p.169.

인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시의 리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과정의 시작을 살펴보면 ㉠부분에서 학습자가 압운감을 기대하면서 시의 리듬을 해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관용적 인식에만 멈추고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읽어내지 못한 시의 리듬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관용적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분을 보면 학습자가 시의 형식으로서의 리듬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뒤, 시의 내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수동적으로만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진행한 비교문학적 읽기 활동에서도 학습자는 압운 인식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새롭고 낯선 시의 형식에 대한 긴장성과 거리감만 보여주었다. 학습자가 한국 시와 중국 시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리듬적인 공통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두 시의 차이점에는 집착하여 포용적인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압운 인식 활성화의 실패는 학습자가 발산적인 사유를 하지 못하고, 리듬에 대한 자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학습자가 시의 운율에 대해 가지는 가장 직관적인 인식은 압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압운에 맞추어 시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학습자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중국 시와 한국 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결국 모순·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제한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행위는 결국 일종의 ‘암호 풀이’ 과정으로 인식되는 데에만 그친다.

또 다른 학습자의 양상이다.

[실험 II-05-PA-산유화]

모국어 때문에 중국 시는 처음 보는 시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어떤 감정인지 대충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시를 읽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한국 시에 대해 잘 몰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다. 「산유화」는 리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중국 시를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산유화」를 읽어보았다. ㉡시의 리듬감이 약간 느껴지기는 한데 여전히 명확히 잘 알리지는 않는다.

추가 인터뷰 질문:

T: 처음에 왜 「산유화」의 리듬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S: 시의 리듬감이 없어 보인다는 뜻인데, 시 자체에서 운율이든 압운이든 모두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㉔시를 산문처럼 읽었어요.

이 학습자는 중국 시에 대한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나 활성화시키는 데는 실패해서 시의 리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㉑에서 보듯 학습자는 한국 시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식 스키마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또 인식 대상이 자신의 기존 인식에 어긋날 경우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동적으로, 또한 주입식으로 시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는 데로부터, 한국 시의 리듬이 자신의 습관화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아 리듬 인식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시와의 비교 단계에서 학습자는 먼저 자기의 리듬 인식을 떠올리고, 그 뒤에 이를 한국 시에 적용하면서 한국 시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 이어서 ㉒부분에서는 학습자가 중국 시에서 느낀 리듬감을 가지고 한국 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인식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했고, 인식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㉓과 같이 낯선 한국어 어휘로 구성된 시를 읽고 스스로 거리감을 조성하고, 시의 형식과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발문에서 학습자는 시가 시로서 압운의 특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자의 의식 속에서 압운은 시와 산문을 구별할 수 있는 형식적 요소이며, 압운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의 압운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는 시로서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한국 시는 자신의 인식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와 대상 한국 시 텍스트 간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못했고,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상을 볼 때, 중국인 학습자의 관습적인 압운 인식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상에 대하여 생산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중국 시의 압운의 성격과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인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식을 한국 시의 리듬 형식과 연결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긴장 속에서 리듬에 대해 특수한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와 학습자가 만나 합일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곳이 문학작품의 현장이다.⁵⁾ 이러한 합일점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와 학습자 간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 학습자의 기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끊어 읽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끊어 읽기(chunked reading)는 켄을 쉬게 하는 기능과 문장 의미를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의미를 분절하고 융합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읽는 방법에는 소리 내어 읽기와 눈으로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음성적인 빈 공간이 생기는 곳, 즉 휴지가 발생하는 곳이 끊어 읽는 지점이 된다. 눈으로 읽을 때는 의미의 융합과 이해를 위해 눈동자가 머무는 시선의 고정(fixation)이 끊어 읽는 지점이 된다.⁶⁾ 끊어 읽기의 시적인 기능은 주로 리듬을 부여해 읽기 유창성을 제고시키고 시적 화자의 심리와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를 이해 대상으로서 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끊어 읽기는 소리 내어 읽을 때 생기는 음성적인 휴지를 지향한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띄어쓰기가 없다. 따라서 중국 시를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느냐 하는 의식은 학습자가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태도는 한국 시를 접근할 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중국인 학습자의 습관화된 끊어 읽기의 형태가 파악되면 이를 한국 시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끊어 읽기 인식은 일상 회화이나 문학 작품 감상에서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리듬 단위 자체는 중국어 운율 형식을 구현하는

5)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p.162

6) Buzan, T., 한국부잔센터 옮김, 『빠르게 읽고 정확히 이해하기』, 사계절출판사. 1999, p.52.

방식으로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소희(1998)⁷⁾는 중국인 낭독의 리듬 단위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介賓구조	單音節的介詞+ 賓語	(단음절 전치사+ 목표어)
虛詞구조	+ 單音節的虛詞	(+ 단음절 허사)
數量구조	數詞+ 單音節的量詞	(수사+ 단음절 양사)
主謂구조	(多音節) 主語+ 謂語	(다음절 주어+ 술어)
連謂구조	謂語+ 謂語	(술어+ 술어)
連詞구조	(單雙音節)連詞+	(단/쌍음절 접속사+)
偏正구조	音節的前半部分+	(음절 앞부분+)
述賓구조	述語+ 賓語	(술어+ 목표어)
述補구조	(單雙音節) 述語+ 補語	(단/쌍음절 술어+ 보어)

이러한 규칙적인 특성은 중국인이 소리를 내어 낭독할 때의 특징을 설명해줄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중국인 학습자의 끊어 읽기 인식이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 절에서는 ‘휴지 긴장도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읽기’와 ‘직관에 의한 음보 구성과 리듬 구조 판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끊어 읽기 인식이 한국 시 읽기에서 활용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지(休止) 긴장도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읽기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연(stanza)과 행(line)을 본다. 연과 행은 시의 내용을 구분 짓는 의미 단위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시적 화자가 하는 발언의 규칙성과 일탈에 동참하여 리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연과 행은 필연적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휴지(休止, pause)와 함께 존재한다.⁸⁾

7) 심소희, 「漢語的節奏單位與語法結構」,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1998, pp.78-80.

8) 고재봉, 「한국 현대시 낭송 방법 연구 : 낭송 상황과 시 형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8.

휴지는 말하는 이가 말을 할 때 내쉬는 숨이 말하는 이의 표현적 필요에 의해 잠시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⁹⁾ 시 안에서 휴지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호흡의 조절로 연과 행 사이에 의미를 채워 넣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시적 화자의 개성을 부각시킨다.

시의 리듬을 형성하는 휴지는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을 점할 수 있다. 즉 낭독의 속도는 휴지의 긴장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시의 의미 또한 조명하고 상호 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시는 순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휴지의 규칙성이 형성되고 통일감과 반복에 따른 주기적인 리듬감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실험 II-09-PA-진달래꽃]

「진달래꽃」을 처음에 읽고 나서는 이 시가 조금 복잡하고 이상한 것 같았고 ㉠뭔가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 뒤에 주어진 중국 시를 보면서 두 시 사이에 분명 연결 고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 시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주로 세 박자로 시어를 나누어보았다. 이렇게 읽어보니 ㉡감정적인 기조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시 전체가 동일한 리듬으로 이루어지고, 규칙적인 운율감이 생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시 「진달래꽃」을 읽을 때 중국 시처럼 이렇게 박자를 두어보고 느리게 읽어보았다. ㉣두 시의 리듬감이 완전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긴 하다. 예를 들면, ‘나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天上 / 飄著些 / 微雲’ 그리고 남은 시구도 비슷한 세 박자 리듬으로 읽어보니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구분한 것 정확한지 모르지만 전에 읽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시의 리듬과 시의 감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 학습자는 비교학습의 과정에서 중국 시를 끊어 읽는 자신의 습관을 바탕으로 한국 시의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 박자로 시어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중국 시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을 파악한 뒤 시의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시 읽기 습관을 엿볼 수 있다. 인용문의 ㉠부분을 보면, 학습자는 처음에 「진달래꽃」을 읽을 때 시의 감정과 맥락을

9) 임규홍, 「‘숨’의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 『한글』 vol.235, 1997, p.94.

잘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구조와 내용적인 의미에 모두 명확하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시 텍스트가 대비 자료로서 학습자에게 제시될 때 인용문의 ㉔부분을 보면 학습자가 의식 속에 인식된 세 박자의 리듬으로 시를 읽어 시인과의 공감을 이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형식적인 리듬과 시의 내재된 감정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㉕에서 보듯 학습자는 세 박자로 구성된 중국 시의 리듬에 주목하며, 시의 규칙적인 박자가 리듬감을 형성하고 직접 시의 분위기에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㉖에서와 같이 학습자는 다시 「진달래꽃」을 읽기 전에 두 시의 리듬적 공통점에 주목하여 한국 시의 리듬을 지각하고 시도한다. 중국 시에서 형성된 끊어 읽기 인식을 적극적으로 한국 시의 형식에 부여하고 낮은 리듬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시의 정서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세 박자로 리듬을 구성하여 스스로 시의 기초를 부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학습자가 진술한 ㉗내용을 보면 학습자가 첫 번째 읽기 경험과 달리 대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학습자에게 내재된 선행 지식의 역할을 형식화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끊어 읽기 습관을 외국어 텍스트의 형식을 인식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데, 텍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리듬을 통해 감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이해에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학습자에 따라 끊어 읽기 습관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다르므로 목표어 텍스트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는 비교학습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식 과정을 보여주었다.

[실험 II-27-PA-진달래꽃]

중국 시를 읽을 때 ㉙박자를 따라 형성된 리듬은 음악 중의 변주(變奏)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시의 감정을 잘 살린 것 같다. 한국 시를 읽는 경우 중국 시처럼 리듬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㉚순환적인 3박자로 이루어지는 리듬이 시의 감정을 더 강하게 꾸미는 것 같다. ㉛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참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느껴지는 그리운 심정이 리듬을 통해 잘 표현된 것 같다.

추가 인터뷰 질문:

T: 두 시를 이런 박자에 따라 읽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S: 일단 낭독하면 감정을 이입해야 하는데 박자를 두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쉼을 두는 것은 ㉔중국의 당시송사를 배울 때 형성된 의식인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습자는 휴지를 두고 시를 읽는 것이 시의 운율감을 잘 드러내는 방식 이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을 공명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학습자가 시를 읽는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시 읽기 습관을 한국 시 읽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끊어 읽기 인식은 리듬적인 유대로서 한국 시와 중국 시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시를 파악해 나가게 한다.

㉕부분을 보면 학습자가 휴지를 두고 생긴 리듬의 기복을 음악의 ‘변주’와 연결하여 연상하였다. 학습자는 시의 음악미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시 감상에 한 단계 나아가는 긍정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가 언급한 ‘변주’라는 말을 통해 학습자가 시어 간에 있는 휴지의 긴장도로 인해 생긴 리듬의 변화와 시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시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㉔과 같이 학습자가 시 순환적인 리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끊어 읽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기적이고 파동적인 운율감 때문이다. 시의 운율을 명료하게 하면 의미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마지막에 있는 ㉔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앞서 해석한 리듬의 변화를 통해 점점 강해지는 시적 화자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감지하게 되고, 형식적인 리듬이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리듬 인식과 내재된 정서를 긴밀하게 연관 짓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어 뒤의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끊어 읽기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통해 중국 전통 시가의 형식과 학습자의 시 읽기 경험이 한국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적 적용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인 학습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식 스키마, 즉 선행적 리듬 인식을 회상하고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리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한국 현대시에 대해 학습자가 복잡한 심리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인식 대상 중심의 교류활동을 통해 불확정성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단계가 매우 필요하다. 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한 비교 과정을 거쳐서 학습자만의 인식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

2) 직관에 의한 음보 구성과 리듬 구조 판단

학습자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나 이해의 규범들을 텍스트 속으로 직접적으로 투영하기도 한다. 학습자의 사적(私的)인 규범들은 대상 텍스트 내에서 방향잡기를 좌우하고, 심지어 이해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관습에 기대어 형성한 직관 인식은 사실적인 대상의 세계와 학습자의 경험세계 사이에 인지적인 장벽을 세운다. 이는 모국어에 의한 간접 현상을 일으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한 인식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이러한 선입견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한국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일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를 오독하거나 거부 심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끊어 읽기를 잘 한다는 것은 시의 형식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잘못된 끊어 읽기는 결국 잘못된 의사소통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리듬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어의 띄어쓰기와 어법구조를 고려하면서 시를 끊어 읽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대상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끊어 읽기 인식이 과연 어떠한 방해로 일으키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고정희(2012)는 학습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배경지식이 실제적 지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습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학습 독자들의 추론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적절히 재구성된 것이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p.196. 참조.

[실험 II-17-PA-초혼]

㉠사실 처음에는 「초혼」의 리듬감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서 시의 내용을 이해 하기도 싶지 않았다. 수업에서 중국 시와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다. 중국 시를 읽는 방식을 가지고 「초혼」을 읽을 때 느낌이 좀 달라졌다. ㉡「초혼」시 자체가 여전히 너무 어렵지만 리듬을 어느 정도로 느껴서 시를 계속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추가 인터뷰 질문:

T: 시를 두 번 읽어봤는데 왜 시의 리듬을 못 느꼈어요? 한국 시의 리듬을 인식하는 데 무엇이 방해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S: 처음에 시를 잘 몰라서 일단 천천히 낭독해 봤어요. 근데 ㉢어디서 멈춰야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앞에 제시한 중국시를 너무 잘 읽어서 한국 시와 큰 차이를 보여요.

T: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S: 제시한 ㉣중국 시는 어구마다 운율감이 있고 유창하게 읽어내는데, 한국 시는 그렇지 않아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형식 스카마의 활성화 과정이 달라지는데, 이 때 목표어 텍스트에 대한 인식 차이와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 학습자는 중국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실패해서 한국 시의 리듬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을 보면 학습자는 처음에 「초혼」의 리듬 형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의 내용을 접근하기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결국 시에 대한 이해를 중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시를 이해하기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를 읽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어서 비교 읽기 활동에는 학습자가 중국 시를 읽는 방식, 즉 중국 시에 대한 리듬 인식을 스스로 활용하여 「초혼」을 읽어보았다. ㉡부분을 보듯 학습자가 처음에 느껴지지 못한 시의 리듬을 발견하고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이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인터뷰의 ㉔부분을 볼 때, 시를 낭독하는 과정은 어구 내부에 휴지를 두고 리듬과 의미를 덩어리로 나누어 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시의 내부에서 쉼을 실현하지 못하고 시의 리듬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를 읽고 스스로 거리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㉕에서 밝힌 바 있듯, 이 학습자는 한국 시 텍스트를 이해하는 관건이 무엇보다도 휴지를 부여하고 리듬과 의미 요소를 그려내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휴지는 시를 이해하는 데 학습자의 사유를 결박하였고, 결국 학습자는 제한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실험 조사에서 학습자 4명의 「진달래꽃」 수업 활동지를 통해 시를 끊어 읽는 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끊어 읽기 결과	끊어 읽는 이유
[실험Ⅱ-07-PA-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맨 처음엔 직감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다시 보니까 문법도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험Ⅱ-21-PA-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 보내 드리오리다	시어를 중국어의 뜻으로 바꿔서 생각한 후 쉼을 두었어요. 그리고 말의 높낮이와 곡절을 따라 이렇게 구분했어요.
[실험Ⅱ-16-PA-진달래꽃] 나/ 보기가 / 역겨워 가실 / 때에는 말없이/ 고이 / 보내 드리오리다	저는 원문의 빈칸을 따라 했어요. 글자 수가 적어서 빈칸에 쉼을 두면 문법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실험Ⅱ-19-PA-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구분하면 시를 낭송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위의 결과에서 학습자 4명이 상반된 음보 구분을 보이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인지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교사의 일반적인 해석대로 시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르는 단어인 ‘역겨워’, ‘고이’, ‘드리오리다’ 등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그 설명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 연과 행 사이에 약간의 쉼을 둔 것이다. 위의 구분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비록 시어의 뜻을 알더라도 낭독하는 과정에서 리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첫 번째 학습자 외에 다른 학습자는 한국 시의 음보 특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나름대로 파악한 리듬과 의미를 구분하면서 쉬는 곳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학습자들은 문장의 구조는 물론이고 글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시를 이해할 때 자신의 끊어 읽기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끊어 읽기 인식이 시의 형식과 의미 파악에 일정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말의 특질에서 비롯되는 한국 시의 리듬 형성의 원리가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리듬은 민족의 성향은 물론 민족의 말글의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만 시의 리듬을 이해할 수 있다.¹¹⁾ 더불어 교사는 대상 한국 시 텍스트를 전제로 학습자들의 배경지식과 경험으로부터 교육 내용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성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중국어에서 소리의 흐름을 이루고, 리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형식은 성조(tone)¹²⁾의 조합이다. 중국 시의 운율 현상에서 성조에 따른 높낮이가

11) 김정화, 「시 교육에서 율격 교육의 이론적 성찰」, 『어문논총』 vol.47,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p.382.

12) 성조는 형태론, 통사론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특징적 성조(characteristic tone)와 어휘 의미를 변별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어휘적 성조(lexical tone)로 나뉘는데, 중국어의 성조는 어휘 의미의 변별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어휘적 성조 언어이다. 손남호, 「표준 중국어의 경계억양에 관한 연구 :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4. 참조.

시의 강약(強弱)과 억양(抑揚)을 이루고 시의 리듬을 형성해준다. 현대시에서 중요한 리듬 요소인 성조는 고전 시의 평측(平仄)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 고전 시는 평측의 간격과 조화를 두면서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표현하고 평측의 규칙적인 교체와 반복을 통해 리듬을 형성한다. 당나라 때의 율시(律詩)나 절구(絶句)에서는 성조의 배합과 운용을 엄격히 하였으며 성조를 운문의 격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현대시는 평측과 율격 등 경직된 작시법에서 벗어나 신체시를 제창하지만 성조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중국 시의 리듬 형성에 있어서 성조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성조가 중요한 리듬 인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시를 학습하는 데 중국인 학습자의 성조 인식은 한국 시의 억양과 장단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인식 충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김소월의 시를 접하고 성조 인식을 활용하여 수용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현대시 리듬 인식의 형성과 시 감상의 구체화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이는 (1) 강세 조성을 통한 직접적 감정 표현과 공감, (2) 억양 차이로 인한 시적 인지 충돌 생성의 두 항목으로 구분된다.

1) 강세 조성을 통한 직접적 감정 표현과 공감

중국어의 성조는 시의 멜로디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의미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부합되게 한다. 성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는 음의 흐름과 강세에 따라서 긴장감을 형성하며 시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때 낭독은 학습자의 성조 인식과 시의 뜻을 어울리게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 중국인 학습자의 배경 지식 가운데 시 낭독에 대한 하나의 관습은 성조의 리듬 효과를 감정화하려는 것이다. 성조 인식이 강한 중국인 학습자가 성조가 존재하지 않은 한국 시를 낭독하면 시의 학습자적인 리듬 구조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시에서 리듬은 의미의 변별소로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¹³⁾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리듬의 흐름과 강세 변화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으며, 시

13)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p.304.

적 화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명을 이루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의 시 읽기 기본 자질 중의 성조 인식을 한국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의 요소로의 율격, 어조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의 학습자의 활동지를 통해 성조 인식의 활용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험 II-22-PA-초혼]

읽어보니 두 시의 ㉠어조가 모두 강하고 직설적으로 감정을 토로하는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의 공통적 리듬 특징을 말하자면, ㉡두 시에서 모두 느낌표와 감탄적인 표현이 많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 시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중국 시에는 고저기복(高低起伏)의 효과를 잘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한국어는 언어 자체가 성조를 가지지 않고, 발음의 경중(輕重)으로 강약을 표현한 것 같다. ㉤한국 시에서 많은 느낌표와 종결어미가 시의 강약 리듬감을 만들었다.

인용문에서 이 학습자는 비교를 통해 두 편의 시 텍스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습자가 발견한 리듬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시의 강세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시 자체의 형식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학습자 자신의 성조 인식 또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밝힌 바 있듯 이 학습자는 먼저 두 시의 격렬한 리듬과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학습자는 시의 리듬과 내용을 이해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강세적인 리듬과 뜻의 어울림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학습자는 두 시를 비교해 나가면서 시를 재이해하는 과정에서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 형성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에서 학습자는 먼저 두 시에서 모두 반복적으로 나타난 느낌표와 감탄사를 바탕으로 시의 강렬한 리듬을 형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된 느낌표와 감탄사는 시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학습자의 주의력을 끌었다.

이어서 텍스트 간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자가 언어 자체의 형식에 존재하는

차이점으로부터 주목하는 양상을 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중국 시에는 운율을 동반한 성조가 시의 리듬감에 작용하여 기복과 억양을 이루어 시의 감정을 모아주는 데서 한국어와 다른 효과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㉔의 경우 학습자는 한국어 언어 형식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성조가 없는 한국어는 억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언어적 장치가 발음의 강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언어 발음의 강약으로 감정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한국어가 가지는 시적 언어의 형식적 특징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서 성조에만 그치고, 심층적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㉔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특유한 발음이 시 안의 종결어미를 통해 구현하고, 시 리듬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이 학습자는 언어 자체의 특징이 시의 리듬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는 해석 결과를 낳았다.

[실험 II-03-PA-산유화]

「산유화」이 시는 워낙 짧고 간단해서 시를 낭독할 때 감정적으로 읽었다. 제목만 보면 이 시는 아마도 즐겁고 가벼운 기조와 감정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읽어 보니 아닌 것 같다. ㉔2절부터 시의 어조가 바뀌면서 외롭고 혼자 피는 꽃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나는 시를 다 읽고 시의 리듬을 되돌아보고 중국 노래 ‘壹剪梅’가 떠올랐다. 이 노래가 계속 배경 음악처럼 들리는 것 같았고, 이 시의 내용을 그 ㉔노래의 선율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시의 ㉔리듬이 반복적이 순환적인 느낌이 들며 외로운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추가 인터뷰 질문:

T: 「산유화」를 읽을 때 노래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이 노래의 선율이 시와 비슷한 점이 뭐예요?

S: 「산유화」의 리듬은 우울하면서도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읽을 때 ㉔시의 리듬과 감정이 똑같은 변화 추세를 이루고 있고, 마치 노래의 선율처럼 유장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인용문에서 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시를 읽은 후 리듬에 대한 인식을 시의 어조에 착안하고 이로부터 시의 리듬을 파악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관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중국 노래의 가곡을 떠올리면서 시의 리듬과 상호 작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습자는 시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시의 제목에 관심을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의 리듬과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상상과 예측의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개인적인 인식으로 시의 제목을 해석하고 개인적인 이해로 시의 리듬과 정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인용문의 ㉠부분을 보면 학습자가 시를 낭독하기 시작하고, 시 어조가 바뀔으로서 시 감정의 변화를 발견하고 시인의 감정세계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어조의 변화는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시를 낭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의 높낮이에 주의를 두는 반응은 자신의 성조 인식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의 어조가 바뀔에 따라 시적 화자의 감정 기복이 생긴다는 인식은 학습자의 고유한 성조 인식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부분에서 학습자가 리듬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노래의 리듬을 연상해내고 자신의 경험적 인식을 동원하여 시의 내용을 연상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잔매(壹剪梅)’는 중국의 대중 가요로서 눈바람 속에 있는 매화가 홀로 피는 모습이 사랑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리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서 시와 노래를 연결하는 양상은 학습자가 시 자체의 리듬과 의미를 융합시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시의 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시의 수용 과정에서 자신의 리듬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분을 보면 학습자는 스스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리듬을 가지는 것이 시의 외롭고 고독한 분위기를 인식하는 데 적극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순환적 어조는 리듬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므로 음의 장단, 강약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성조 인식이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학습자의 경우는 자신의 성조 인식을 가지고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을 인식하고, 인식된 리듬을 통해 시의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으

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순환적이고 기복적인 리듬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중국인 학습자의 성조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에 따라 달라진 수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학습자의 관습적인 인식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억양 차이로 인한 시적 인지 충돌 생성

시행의 독특한 종결율조는 구문적 억양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생긴다. 억양은 시 리듬의 기본요인으로서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강세, 길이, 리듬, 속도, 목소리의 음질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⁴⁾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각 음절마다 고유의 음높이를 가지고 있는 성조 언어(tone language)¹⁵⁾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억양은 성조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음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시에서 억양과 성조의 음높이가 상호작용하면서 시의 리듬을 이룬다. 중국어 성조와 억양에 대해 조위안인(趙元任, 1933)¹⁶⁾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어의 성조는 뜻을 나타내고, 억양은 태도를 나타낸다. 그들의 관계는 첫째, 성조와 억양이 중첩되는 대수의 합(代數和, algebraic sum)이다. 둘째, 작은 파도와에 큰 파도가 탄 것과 같다(小浪加大浪). 셋째, 성조음역(字調調域)은 억양의 영향을 받는데 고무밴드(橡皮, elastic band)와 같이 음역(range of pitch)이 늘어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¹⁷⁾

14) 이현복,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vol.1, 1976, p.132.

15) 정혜인, 「중국어 경성이 한국어 문말 억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7.

16) 趙元任, 「漢語語調研究」, 『中研院史語所集刊』 vol.4, 1933.

17) 권영실, 「표준중국어 억양연구의 현황과 방향」, 『中國學研究』 vol.30, 2004, p.329.

이상의 내용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성조 인식이 한국 현대시 읽기에 작용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다른 억양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언어이든 리듬은 시의 언어적 구성성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촉매이다.¹⁸⁾ 여기서 시적 언어가 움직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억양을 통해 파도와 같은 기복의 변화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시를 읽고 억양 차이로 인해 오독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 학습자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실험Ⅱ-14-PA-산유화]

중국 시는 한국 시보다 리듬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 시에서는 리듬의 변화와 시인의 감정의 변화가 서로 대응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한국 시도 이와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시를 한 번 더 읽어봤다. 한국 시에서는 리듬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시인의 감정도 리듬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

이 학습자의 경우 시의 리듬이 시의 감정 기복에 따라 이루어짐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학습자가 리듬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기복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의 표면적 뜻을 뚫고 감정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중국 시의 리듬을 발견하고 이를 시의 감정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이어서 한국 시를 접근할 때 중국 시의 감상 방식에 따라 시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시도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와 같이 학습자는 같은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두 시의 문학적인 특징도 비슷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한·중 시의 비교학습 과정에서 단순히 중국 시의 리듬의 역할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와 연결시킬 때도 같은 사고로 바라보고 있으며, 시의 정서 표현에 대해 우선적으로 리듬의 효과로부터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또한 시인의 감정이 복잡하지만 리듬으로 이 불확실한 감정을 해소하고

18) 얀 무카로브스키, 시적 언어란 무엇인가, 현대시의 이론, 로만 야콥슨 외, 박인기 편역, p.56.

풀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시를 어떻게 읽는 지에 대해 내재된 요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감상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학습자는 점차 격렬해지는 시의 감정을 인식하는 동시에 시가 제시한 언어표상을 넘어 내재된 의미 자체를 형성화하는 단계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리듬의 변화에 따른 감정 기복을 의식하게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시의 표면적 뜻을 뚫고 감정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형식적 스키마를 활용하고 시의 리듬감을 다시 형성하는 데까지는 이뤘지만, 감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실현하지 못했다.

[실험Ⅱ-11-PA-산유화]

나는 ㉠시를 묵독하기와 낭독하기가 자신에게 주는 체험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국 시의 내용을 눈으로 볼 때 시인의 감정은 그냥 종이에 씌어있는 것뿐이지만, 입으로 직접 낭독하면 시인의 감정은 마치 눈앞의 호수와 같은 존재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진다. 입으로 낭독하면 시인의 감정은 눈앞에 호수와 같은 존재이며 아주 생생하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한국 시를 낭독해봤는데 시의 감정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중국 시를 읽어보면 리듬의 반복이 시구의 반복, 글자의 어음(語音), 그리고 읽을 때 억양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시를 읽어보면 리듬의 반복은 시구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왜 그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한국어 자체는 부착어이며 조사나 종결어미가 되게 발달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억양과 말투가 거의 다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하는 것 같다. 중국어도 종결어미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말할 때 종결어미의 역할이 한국어만큼 중요하지 않다.

위 사례는 학습자가 두 시의 감정을 다르게 이해하고, 리듬의 차이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성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이 시 읽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과 사고를 이루지 못했다. ㉠에서 밝히고 있듯 학습자는 시의 내재적인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묵독보다 낭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㉔에서와 같이 학습자는 묵독과 낭독의 효과를 ‘종이’와 ‘호수’로 비유하고, 중국 시든 한국 시든 생생한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 낭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낭독은 호흡과 소리의 결합을 통해 시의 리듬을 형성하고, 리듬이 다시 의미의 흐름에 작용하여 숨겨진 감정을 강화한다. 이어서 ㉕부분을 보면 두 시의 리듬 대비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중국 시에서 반복된 리듬 의식은 시구의 반복, 글자의 어음, 억양으로 나타나고, 한국 시에서는 주로 시구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학습자는 두 시의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리듬의 차이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 차이점이 형성된 원인을 찾고 있다. 학습자가 인식한 차이점에 대해 원인을 탐구하는 결과는 ㉔과 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중국어보다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한국 시의 리듬 반복을 종결어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목표어 문학작품을 접근하는 과정에 성조 인식의 편견으로 인해 대상 이해의 폭이 제한되며, 시 감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성조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현대시 리듬 요소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식 활동을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한국 현대시 이해에 학습자 리듬 인식의 영향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은 모국어 문학 학습의 결과이자 한국 시 읽기의 선행요소이기도 한다. 학습자의 습관적인 리듬 인식이 목표어 시의 이해의 방향과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 활용 양상을 보면 기존의 리듬 인식과 목표어 시 이해 능력 간에 주로 촉진과 방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연관된다.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리듬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분석을 통해 리듬 인식과 시 이해 간의 긍정적인 상호 영향과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리듬 인식 활용의 긍정적 영향

한국 현대시를 읽을 때 학습자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관습적인 리듬 인식을 시의 형식과 내용에 적용한다. 이때 일부 학습자의 경향은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시 작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식을 활성화한다. 이런 경우에 학습자의 관습적인 리듬 인식 자체가 시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시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유한 리듬 인식인 압운 인식, 끊어 읽기 인식, 성조 인식이 한국 시 리듬과 내용 이해에 끼친 적극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이해가 압운 인식에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고전 시가의 리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만큼 현대시에서 압운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리듬 요소로 간주된다. 아직 한국 현대시에서 압운의 이론을 정립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¹⁹⁾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의 리듬감을 압운의 형태로 인식하고 동화하기 때문에 압운 인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시에서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나,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은 소리의 회환미(回環美)와 음악미(音樂美)를 형성하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 시의 선율과 같은 친숙한 리듬감을 가져준다. 이때 학습자들은 외국 문학 작품 이해와 감상에서 모국어 문학 작품의 성질과 같지 않아 대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학의 체계 안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압운 인식이 확장되고 새로운 시적 체험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이해가 끊어 읽는 습관에 기반하여 의미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이다. 시는 낭독을 통해 리듬과 감정을 구현한다. 낭독은 끊어 읽기를 통해 파동을 만들어 정서와 의미를 만드는데²⁰⁾ 기여한다. 끊어 읽기는 의미나 감정에 따라 쉼을 두고 리듬감을 실현하면서 느낀 감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중국 전통 정형시의 운율과 음보 규칙은

19) 강흥기, 「한국 현대시의 압운(押韻)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지』 vol.16,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p.2.

20) 노철, 「시 감상교육에서 운율의 활용 연구」, 『한국시학연구』 vol.11, 한국시학회, 2004, p.270.

학습자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끊어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게 된다. 이때 한국 시의 띄어쓰기의 특징에 따라 의미단위를 판단하고 휴지를 두어 주기적이면서 순환적인 리듬감을 실현하고 감정의 기복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이해가 성조 인식에 기반하여 소리의 억양과 감정 기복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이다. 성조는 소리의 고저와 장단의 형식이다. 중국 시의 작법 중의 하나는 중국어 자체의 성조를 이용하여 시의 형식과 의미를 표현한다.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 성조의 변화에 따라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성조 인식을 가지고 성조가 없는 한국어로 된 시를 읽을 때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통해 시의 리듬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는 익숙한 성조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한국 시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리듬 인식 활용의 부정적 영향

외국 문학 작품의 읽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고정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개방적인 문학 사고력 성장과 향상에 중점을 둔다. 외국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에 기대고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인식 대상에 대해 낮설게 느끼기 마련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리듬 인식이나 관련 경험을 활용할 때 긍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동시에 국한성이 또한 이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리듬 인식을 활용한 중국인 학습자의 습관적인 시 읽기 경향을 바탕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리듬 인식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모국어와 목표어 시 텍스트 간의 리듬적인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시를 감상할 때, 학습자들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작품을 감상하다가 배경지식 속에서 길을 잃는 다는 것이다.²¹⁾ 이때 학습자가 배경지

21) 유영희,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 경향에 관한 연구」, 『나랏말쌈』,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p.24.

식을 제대로 동원할 수 없어 이해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압운적인 표현에 집착하면서 한국 현대시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소리 요소와 구별하고 결국 감상 효과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는 리듬 인식 활용의 실패로 인해 시의 문맥과 주제에 대한 깊은 파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관습적인 리듬 인식에 끊임없이 기대면서 편벽한 시각으로 이해 대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에 기대는 경향을 보면 시를 시답게 이해하지 못하고 심미적인 태도와 낭만적인 태도로 시를 감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한국 현대시의 특유한 리듬 구조에서 부여된 의미의 특수성을 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시의 리듬 인식을 감상과 관련지을 때 학습자의 수용과정은 형식과 내용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습자 인식의 결정적인 영향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IV.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 양상과 이를 통해 도출된 교육적 과제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리듬의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은 교육 설계의 목표로 삼고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의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절차 및 세부 활동으로 ‘리듬 인식을 위한 비교·발문 조정하기’, ‘리듬 인식을 활용한 낭독하기’, ‘리듬 인식을 활용한 모방시 쓰기’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목표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관습적인 리듬 인식을 충분히 활성화하여 재구성하고 한국 현대시의 리듬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그리고 학습자가 한·중 현대시 리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관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현대시에 대한 시적 능력(poetic competence)¹⁾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은 한국 현대시의 특정한 리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와 비교하면서 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리듬적 특징을 인식하고 심미적 효과를 학

1) 김창원은 시적 능력을 “시를 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시와 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에 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시 텍스트의 인지 후 그에 대해 시적으로 반응하려는 태도, 시적 사고와 시적 언술의 특성을 알고 비시적 텍스트의 참조 아래 시적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 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시적 텍스트로 재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50. 참조.

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시 해석 능력의 계발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목표를 (1) 리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2)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3)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의 세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리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그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교사는 시의 감상과 이해과정에서 시의 형식적인 리듬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는 결국 학습자로 하여금 시의 정서 해석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학습자들이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 학습자들이 한국 현대시에 대해 항상 방관자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시 교육의 실체는 내용에 대한 교과서식 접근을 넘어서기 어렵다.

문학은 정의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에서보다는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학교육의 영역 중 정의적 영역에 정서적 사고, 심미적 사고, 윤리적 사고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시 텍스트는 이러한 정서적, 심미적, 윤리적 감동을 학습자들이 작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²⁾ 이는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현대시교육에서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한국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점이다.

시 교육은 학습자의 의미 해석과 정서 함양에 중점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시의 리듬은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와 심미 의식을 함양하는 데, 시적 화자의 정서적 체험에 대해 공감할 수 있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습자에게 있어 시라는 것은 격언과 다름없는 것이 되거나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평 안으로 포괄되지 않는 대상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되어 버린다.³⁾ 바로 이러한 점에서

2) 윤여탁, 『시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시의 형식으로서의 리듬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시의 음악성과 구조를 통해 학습자의 정서를 조절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시적 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텍스트의 고유한 문맥 속에서 리듬이 갖는 의미를 실현하도록 하는 리듬 인식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역시 리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일차적 목표로 삼게 된다.

(2)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시학은 형식과 의미의 이분법을 취하한 곳으로 측수를 뺀어대면서 의미생성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며⁴⁾, 시 교육 역시 시 텍스트의 리듬이 의미를 생산하는 핵이 되고 의미와 무관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다. 주광치안(朱光潛)은 시의 형식과 의미의 실현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감정과 상상은 본래의 모습이 호방하고 거친데 시에서 쓰이게 되면 얼마간의 차분함과 엄숙함, 그리고 단정함을 가지게 된다. 이는 시 리듬의 작용으로 생성하는 것이다.⁵⁾

주광치안은 시의 형식과 의미를 연관시켜 논의함에 있어서 리듬이 곧 시의 감정과 의미의 담지자, 시의 의미는 형식의 인공적인 세례를 겪고 나서야 시의 심미적 정취가 드러난다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형식은 의미를 가지며 그와 동시에 의미는 형식 속으로 융합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는 결국 시라는 문학 장르 외의 비심미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시 텍스트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 기반을 두지만 그것의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구성된 언어라는 특성을 갖는다.⁶⁾ 이러한 인공성은 시에서 형식적 기능

3) 민재원, 「현대시 리듬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3.

4) 조재룡, 「리듬과 의미」, 『한국시학연구』 vol.36, 한국시학회, 2013, p.136.

5) 朱光潛, 「詩與散文」, 『詩論』,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4, p.120.

“情感想像本來都有幾分粗野性, 寫在詩裡, 他們卻常有幾分冷靜、肅穆與整秩, 這就是音律所鍛煉出來的。”

6) 오성호, 『서정 시의 이론』, 실천문화사, 2006, pp.54-55.

과 내재된 표현적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시어가 단순히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미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모국어와 달리 한국어로 된 현대시를 감상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작품의 미적 효과를 읽어내고 감지하면서 한 작품의 문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의미도 부여한다. 이를 위한 학습자의 연행적인 접근, 즉 낭독은 문학 작품에 사상과 감정, 음악적 리듬을 붙여 넣어 시의 본질과 특성에 가깝게 접근하게 한다. ‘노래말꽃의 가락이 글자를 적어 넣은 좋은 모양만을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읽어내어 드러나는 소리의 결로서 따지는 것’⁷⁾이라는 말과 같이, 연행은 현대시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습자는 연행을 통해 문자언어를 음성언어로 전환하면서 작품을 심층적으로 해석해 나간다. 따라서 학습자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리듬의 유형과 같은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미적 문학체험의 획득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

문학교육은 문학을 배움으로써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과정으로 문학적인 사고력을 고양할 수 있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외국 문학 작품을 접하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 속에서 지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문학 텍스트를 접근하는 과정에 문학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결국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으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게 한다.

시는 다양한 인간 경험의 영역에 그 의미 작용의 근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고정된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학 읽기의 교육적 가치가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를 즐기고

7) 김수업, 『배달말꽃-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2002, p.404.

그로부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세계를 확충하는 데 있는 것⁸⁾이라고 볼 때,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현대시 교육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시 읽기 활동은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학 세계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해석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⁹⁾

가다머(H.G. Gadamer)에 따르면 경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우리의 기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경험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경험이다.” 전자는 앎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경험이고 후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대상에 새롭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앎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부정성의 경험이라는 특성을 띤다. 가다머는 후자의 경험에 주목한다. 경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거나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부정의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¹⁰⁾

중국인 학습자는 리듬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을 넘어 주체적으로 리듬의 의미를 실현하고 그로부터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와의 관계를 이해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시를 통해 문학적 지평을 확장하여 한·중 문학세계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해 발견하고, 문학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한국 현대시 읽기 활동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문학적, 지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한국 시의 형식과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럼으로써 문학 교실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경험이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자 한다.

8) 우한용, 「문학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반 검토」, 『선청어문』 vol.3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4, p.46.

9) 최적 경험이란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의 용어로 주체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몰입하여 자기 힘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운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느끼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김미혜, 「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3. 참조.

10) H. G. Gardamer, *Truth and method*, N.Y.: Seabury Press, 1975, p.317. (최명선, 『해석학과 교육: 교육과정사회학 탐구』, 교육과학사, 2005, p.77. 재인용.)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내용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가 리듬 인식을 활성화하여 대상 한국 현대시 작품의 리듬에 대해 인식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리듬 인식을 의미화 하여 시에 대해 이해를 조성하고 리듬 인식을 내면화하여 시적 능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 현대시는 단지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 대상을 넘어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앞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절차에 따라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할 때 중요한 것은 모국어 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관습적인 의식을 충분히 환기하여 목표어 시 텍스트에서 리듬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고, 그러한 리듬감을 내면화하는 일이다. 이해 주체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 비교문학적 접근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중 현대시 텍스트 내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습자가 지닌 관습적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시 텍스트의 독특한 리듬 구조를 인식하도록 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충분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시 텍스트의 리듬 구조를 비교하여 파악하는 교육 및 소통 환경의 조성이 교육 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 시 텍스트에 나타난 운율적 특징, 각각의 민요적인 리듬 표현을 하나의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인식 대상의 기본적 자질이나 특징은 익숙한 사상(事象)과 비교되면 인식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비교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관용 인식을 변형하고 재구성하

여 주체적인 이해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비교학습 방법은 대상의 독특한 성질을 인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에 임하게 될 수 있다. 비교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한 작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¹¹⁾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어문학 작품을 접할 때, 자신에게 익숙한 모국어 작품을 발판으로 삼게 된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문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어 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이 비교문학적인 접근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텍스트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비교문학적인 접근을 통한 리듬 인식의 형성 과정은 텍스트 간 형성된 유사성의 맥락을 발견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차이성을 탐구하고 이를 다시 텍스트 내적 및 외적 맥락과 결부하여 이해함으로써 이해의 망을 넓히는 과정이다.¹³⁾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습적인 리듬 인식이 비교 이해 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로만 잉가르덴(Roman Ingarden)에 따르면, 문학적 작품은 두 개의 극, 즉 예술적인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의 양극(兩極)을 지니고 있다. 예술적인 극은 예술가에 의해서 창조된 텍스트 자체이며, 심미적인 극은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는 독자와 만나 합일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문학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상으로 보면 문학 작품은 독자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독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심미적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시 작품을 읽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하면 비교문학적인 접근은 관용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리듬 인식과 대상 작품의 리듬 요소 간 비교를 진행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시 형식으로서의

1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434-439.

12) 주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려속요의 여성상(女性像) 교육 연구-송사(宋詞)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96.

13) 전홍,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p.197.

리듬을 비교하면서 리듬 구성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외국 문학 이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충분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 비계로서의 중국 시 텍스트와 대상 한국 시 텍스트 속의 리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 및 소통 환경의 조성이 기초적인 교육 내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문학적인 이해 활동에서 중국 시에 대한 리듬 인식 환기, 한국 시의 리듬 구조 인식 형성, 한·중 현대시의 리듬 형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탐구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된다.

(2)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시를 학습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대시의 시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으로 동감(同感)할 수 있는 태도가 먼저 요구된다.¹⁴⁾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적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충분한 감상을 통해 의미와 형식의 조화를 이해하고 한국 현대시 특유의 심미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환기시켜 대상 시 텍스트의 리듬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음속의 리듬 인식이 확장될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스스로 재구성한 리듬 인식을 통해 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리듬 인식의 의미화 과정, 즉 의미의 변별소인 리듬이 시의 내적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동시에 학습자로 하여금 이를 적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빈자리들이 점점 채워진다. 따라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시의 의미와 리듬의 조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리듬 인식의 의미화 단계로, 학습자가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를 찾아보고 화자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내용이다. 시적 화자는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¹⁵⁾ 이 단계는 학습자가 시를

14)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10, p.159.

읽으면서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 사람의 위치에서 시를 읽는다는 의미화 과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먼저 화자의 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고, 시인이 이러한 발화를 설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추론하는 순서로 구성된다.¹⁶⁾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제한적인 판단을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만큼 학습자가 시적 표현이나 작품 속의 다양한 변인에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시를 읽어보려고 했을 때 학습자는 시의 함축성을 풀어내는 데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모국어로 된 시와 달리 한국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나 낯선 시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국 시인 김소월의 작품은 민요적인 표현과 독특한 시적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가 습득한 한국어 일상 언어와 구별되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활동을 선행해야 학습자가 시에 대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듬 인식 의미화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다른 하나의 내용은 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사고 과정이다. 즉 시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내가 시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¹⁷⁾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품 속에 항상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지는 않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서술된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이 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난히 어려운 부분이다. 학습자가 시의 표면적인 뜻을 파악한 뒤 목표어 스키마의 부족이나 기존의 인식과 불일치로 인해 시를 이해해 나가지 못하고 시의 의미화 과정이 쉽게 중단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의 형식으로서의 리듬 요소와 다른 시의 하위 요소들을 통합해 나가며 시인의 의도를 주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15) 박용찬, 『시 교육 방법의 이론과 현장』, 도서출판 영한, 2004, p.39.

16) 진가연,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83.

17) 박용찬, 앞의 책, p.44.

18)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 출판부, 1995, p.93.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으로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의미화하고 맥락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외적 요인에서 내적 요인으로의 이해 방향의 전환 과정에서 시적 화자의 의도 이해, 시의 정서 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모습에 한 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시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성자료를 사용하고 학습자 자신의 지각과 반응에서 출발하고 리듬으로부터 나아가갈 수 있는 시 감상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

한국 문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문학교육 방식은 작가와 배경 소개, 문체 분석, 텍스트 분석 등을 교사가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한 지식을 암기식으로 외우면서 문학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으로 이어지며,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학의 이해에 있어 수동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습관화하게 되고 결국 외국 문학의 방관자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단순한 수용자 이상의 것, 즉 생산적 독자로 성장해야 한다.¹⁹⁾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과정은 주제와 의미를 파악한 뒤 이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읽기의 깊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적 인식의 소통과 표현을 통한 외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소통과 표현을 통해서 이해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통과 표현의 과정을 내면화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시 텍스트 읽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 읽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내면화와 자기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블룸(Bloom)의 교육 목표 분류 유목에 따르면 내면화 과정은 정의적 영역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수용한 가치를 개념화하고 가치체계를 내적으로 조직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인격 속에 융해시키는 과정이다.²⁰⁾ 따라서 내면화는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개성적으로 자기화하는 과정이

19)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445.

라고 볼 수 있다.

내면화 과정에서 학습자가 시를 읽고 받은 감동과 울림은 다시 자신의 지평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리듬 인식의 관용 형태가 기대지평의 범위 내에서 한 단계 더 활성화된다.²¹⁾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 문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 내면화의 최종 목표는 문학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이러한 능력은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소통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리듬 인식 활용과 확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시 이해교육은 한국 시에 대한 시적 능력의 신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소통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학습자 자신의 문학적 이해 능력을 증진하고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내적 인식을 밖으로 발산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가치를 살리고 이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 텍스트 형식으로서 리듬의 의미화 과정이 이루어진 뒤에 시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시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이해와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김소월의 세 편의 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은 시 텍스트의 리듬을 환기(evocation)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형성된 반응(response)을 일차적인 해석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2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p.164.

21) 박찬기,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p.28.

점에서 반응 중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²²⁾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문학교육에서 독자 반응 이론의 발전 모델(developmental model)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실행하였다.²³⁾ 이 발전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지식적 이해 → 감정이입 → 비교 → 해석 → 평가 → 재인식’²⁴⁾의 교육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II장에서 제시한 리듬 인식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교육의 구조를 이를 바탕으로 적용한다면, 본 연구의 교수·학습 과정은 지식적 이해 단계에는 리듬 인식 환기와 재구성의 과정, 감정 이입 단계에는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 의미화 과정, 재인식 단계에는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 및 내면화 과정이 상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발전 모델에서 제시한 비교, 해석, 평가의 절차는 감정 이입 단계를 통해 구현된다고 보아 특별히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으로는 ①리듬 인식을 위한 비교·발문 조정하기, ②리듬 인식을 활용한 낭독하기, ③리듬 인식을 활용한 모방시 쓰기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육 방법의 교수·학습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 고급 수준을 가진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을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검증실험은 제시한 방법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들의 감상문, 수업 대화,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 효과를 살펴보았다.

22) 이는 로젠블랫의 구분으로, 여기서 환기는 ‘텍스트와 심미적으로 교류하는 동안 독자가 자신의 언어적·문화적 삶의 과거 경험에서 끌어온 아이디어·감각·느낌·이미지를 선택하여, 작품에 담긴 새로운 경험과 종합하는 과정’으로, 반응은 그러한 ‘환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된다. L. M. Rosenblatt, *The Literary transaction: Evocation and Response, Theory into Practice* vol.21, Children's Literature, 1982, p.268. 참조.

23) Geoff Hall, *Literature in Language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05, pp.107-109.

24) 위의 책, p.108.

(1) 리듬 인식을 위한 비교·발문 조정하기

1) 리듬 인식을 위한 작품 비교하기

실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현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목표어와 모국어에 대한 기존 인식이 시의 리듬 이해와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유대 관계를 맺고 스키마를 활성화하면서 인식 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는 학습자들이 있었고, 반면 자신의 관용적 인식에 집착하면서 스키마를 밀봉하여 결국 잘못된 의미를 구성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기대지평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대지평을 형성시켜 주고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살펴보는 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²⁵⁾ 한국 현대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는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을 갖고 목표어시 텍스트를 대하기 마련이다. 목표어시의 형식과 내용이 자신의 인식과 일치될 때는 이해가 더욱 쉽게 될 것이며, 공감의 정도도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적 배경 지식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한국 시의 리듬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인 학습자 자신의 선지식이나 선경험을 최대한 되살려 시의 리듬을 인식하고 시를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한·중 두 편의 시를 동시에 제시하여 시를 비교하는 활동을 구안하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시에서 비슷한 리듬 형식을 나타내는 한·중 두 편의 시를 동시에 제시한 후, 학습자가 각각의 시에서 리듬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게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시편에서의 리듬 요소를 최대한 파악하여 학습자의 고유한 리듬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두 편의 시 텍스트 간 연결 고리를 찾고

25) 진가연, 앞의 논문, p.88.

한국 시의 리듬을 명료화하여 인식의 재구성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대표시인 김소월의 시를 리듬부터 이해하고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실험Ⅲ-06-초혼]

㉠「홍초」는 시인이 홍초를 부르고 또 부르며, 자신의 진지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시인이 홍초의 헌신적인 정신을 노래하는 듯하기도 하고 자신의 애국 저서를 노래하는 듯하기도 하다. ㉡「초혼」은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인의 비참한 심정이다.

이 학습자는 두 시의 리듬 비교를 통해 시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습자의 전반적인 감상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에게 익숙한 중국 시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감상문을 보면 학습자가 중국 시에서 형성된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감정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자는 홍초를 여러 번이나 부르는 것을 바로 시적 화자의 내적 호소라고 본다. 이어서 이 홍초를 부르고 있는 시적 화자의 동기에 대해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시의 내용에 대한 사고를 하고, 홍초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하여 결과적으로 시인의 애국 의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학습자의 한국 시에 대한 이해과정은 ㉡을 보면 앞선 ㉠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되는 양상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초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대’라는 이름 부르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이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시적 화자가 그대’에 대해 강한 그리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인용문에서 학습자가 ‘감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감정에 일정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즉 시 감상의 효과가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시의 리듬 인식을 감상과 관련 지을 때 학습자의 수용과정은 형식과 내용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이후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를 감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

금 시 전체적인 구성체로서의 리듬을 인식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통해 시를 해석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서 제시한 활동은 시 작품 속의 리듬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현대시 시어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을 돕고,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뜻을 파악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피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2) 리듬 인식을 위한 발문 조정하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질문과 대화로 이루어진다. 가다머는 질문은 텍스트 앞에 자신을 여는 행위이며, 대화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해석의 연속이라 보았다. 적절한 발문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과 실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의 집중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와의 적절한 대화 전략을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²⁶⁾ 김상수는 쉰버리(Thombury)와 유은영의 논의를 참고하여 실제로 한국어 교수를 교수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의 발문 전략을 ‘단계성 전략’과 ‘명료성 전략’으로 나누고 세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⁷⁾

<한국어 교사의 발문 전략(김상수 2013)>

유형		내용
단계성 전략	지목하기	학습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돕기
	도움 주기	-교사가 대답이나 목표어의 일부를 말하기 시작하기 -동작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발화 돕기

26) P. D. Eggen, & D. P. Kauchak, *Strategies and Models for Teachers: Teaching Content and Thinking Skills(6th ed.)*, 임청환·강영하·권성기 옮김,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 시그마프레스, 2014, pp.83-92.

27) 김상수,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vol.60, 2013, pp.173-175.

명료성 전략	응답 내기	발문 후 학생의 응답 발화 기다려 주기
	연속 발문	앞의 발문에 이어서 관련 발문하기
	발문 재조정	질문의 형식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 바꾸기
	명료화 요구	학생의 응답 발화 재확인하기
	발문 반복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발문을 반복하기
	재진술	학습자의 이해 혹은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쉬운 말이나 학습자 모국어로 바꾸어 발문하기

기존 리듬 인식의 활용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체험 표상 과정 중 하나이지만, 이를 수업 시간 내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발문을 통해서 텍스트 리듬 요소들의 시적 상황 내의 명료화, 학습자의 경험 지평을 활용한 연합, 비교문학적 연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발문의 의도성과 인공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발문을 제시하되, 학습자가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의 질문 설정은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동기화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의 기대를 형성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하고 유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 경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 사고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의 세 가지 부분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리듬 인식을 유형화시키고자 하였다. 검증 실험에서 이 과정은 아래의 질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실험Ⅲ-05-진달래꽃]

1. 한국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리듬 상 가장 뚜렷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적어보세요.
⇒ 시를 읽을 때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담담한 수필처럼 읽었다.

2. 중국 시와 비교해보면서 두 시에서 리듬 상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적어보세요.

⇒ 중국 시를 낭독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시어를 끊어 읽었다. 그리고 다 읽고 보니 절마다 똑같이 구분했다. 한국 시 또한 이렇게 읽으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시는 똑같지 않은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한 시구에 음보를 2 개씩이나 3 개씩 놓고 읽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학습자는 처음에 한국 시 텍스트에 대한 리듬 인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시를 이해하는 데 그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 학습자의 답변 내용에서 시 텍스트에 드러나는 시적 표현에 대해 파악하고 나서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생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 번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중국 현대시 텍스트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중국 시의 리듬적인 특징으로부터 한국 시에의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한 · 중 시 텍스트에 드러나는 리듬을 비교하는 활동은 각각의 시의 형식에 대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리듬 인식을 가시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비교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물론 불확정성과 인식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학습자가 시의 리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는 다음 단계의 계기로서 기능한다.

(2) 리듬 인식을 활용한 낭독하기

리듬은 발화를 통해 파동을 만들어 정서와 의미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시의 전체적인 구성체이다.²⁸⁾ 시는 두운, 유음, 공명, 의성어, 각운 등을 포함한 수많은 소리의 장치를 사용한다.²⁹⁾ 따라서 시를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시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듬 인식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에서는 시 작품이 지향하는 바와 운율의 형상이 어느 만큼의 유기성을 지니고

28) 노철, 「시 감상교육에서 운율의 활용 연구」, 『한국시학연구』 vol.11, 한국시학회, 2004, p.270.

29) 위의 논문, p.271.

있는가를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³⁰⁾ 리듬 인식을 형성한 뒤 유기화하는 단계에서 시가 구현하고 있는 리듬의 느낌과 리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 감상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시의 낮은 리듬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리듬을 잘 살린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명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리듬 인식을 구체화하고 리듬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낭독이 그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낭독은 시의 교수·학습에서 이해와 감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이 눈으로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입으로 낭독하는 행위 또한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시 낭독하기 활동은 현대시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³¹⁾ 낭독은 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시를 낭독하는 동안 시의 분위기와 리듬을 파악하고 시어의 구체성을 체득할 수 있다.³²⁾ 그리고 낭독은 문자언어를 단지 음성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며, 낭독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³³⁾ 그러므로 리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낭독은 외국인 학습자와 시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시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리듬 인식이 시 이해와 감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시의 리듬과 의미와 조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낭독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를 매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자료는 문학교육과 언어교육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의 시 낭송의 음원자료는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루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혼」, 「산유화」의 시낭송 음원자료³⁴⁾를 도입하고 낭독

30) 김대행, 『문학교육의 틀짜기』, 역락, 2000, pp.174-175.

31)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0, p.188.

32) 박춘우, 「‘어부사시사’의 교육방안 연구」, 『우리말 글』 vol.30, 우리말글학회, 2004, p.130.

3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pp.250-251.

34) 시 낭송 음원자료의 출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한다.

작품	시낭송 음원
「진달래꽃」	재능시낭송협회, 『한국 낭송명시집』, 재능교육, 2006.
「초혼」	편집부, 『무대위의 시 세트』, 원음예술사, 2009.

활동을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선정된 시 낭송 음원자료의 리듬 표현 형식을 각각 정리하도록 한다.

작품 원문	낭송 방식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 보기가 / 역겨워 2 1 1 2 1 1 2 가실 때에는 1 2 1 1 1 말없이 / 고히 보내 / 드리오리다 1 1 2 1 1 1 2 1 1 1 1 2 영변에 / 약산 1 1 2 1 1 진달래 꽃 1 1 1 1 아름 따다 / 가실 길에 / 뿌리우리다 1 1 1 2 1 1 1 2 1 1 1 1 2 가시는 / 걸음걸음 1 1 2 1 2 1 2 놓인 그 꽃을 1 2 1 1 1 사뿐히 / 즈려 밟고 / 가시옵소서 1 1 2 1 2 1 2 1 1 1 1 2 나 보기가 / 역겨워 2 1 1 2 1 1 2 가실 때에는 1 1 1 1 1 죽어도 / 아니 눈물 / 흘리우리다 1 1 2 1 1 1 2 1 1 1 1 2
	산에는 / 꽃 피네

「산유화」	김정웅, 『낭송문학과 발성법』, 을지출판공사, 2013. https://www.youtube.com/watch?v=OBpwDInF-1Y .
-------	--

<p style="text-align: center;">「산유화」</p> <p>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p> <p>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p> <p>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p> <p>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p>	<p>1 1 2 1 1 2 꽃이 / 피네 2 2 2 1 갈 봄 / 여름 없이 2 2 1 1 1 1 꽃이 / 피네 2 2 2 1</p> <p>산에 1 2 산에 1 2 피는 / 꽃은 2 2 2 1 저만치 / 혼자서 / 피어 있네 1 1 2 1 1 2 1 2 2 1</p> <p>산에서 / 우는 / 작은 새여 1 1 2 1 1 1 1 2 2 꽃이 / 좋아 2 2 2 2 산에서 / 사노라네 1 1 2 1 1 1 2</p> <p>산에는 / 꽃 지네 1 1 2 1 1 2 꽃이 / 지네 2 2 2 1 갈 봄 / 여름 없이 2 2 1 1 1 1 꽃이 / 지네 2 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초혼」 (부분)</p> <p>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p>	<p>산산이 / 부서진 / 이름이여! 2 1 2 1 1 2 1 1 1 2 허공 중에 / 헤어진 / 이름이여! 1 1 1 2 1 1 2 1 1 1 2</p>

<p>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p> <p>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p> <p>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p>	<p>불러도 / 주인 없는 / 이름이여! 1 1 1 1 1 1 2 1 1 1 2 부르다가 / 내가 죽을 / 이름이여! 1 1 1 2 1 1 1 2 1 1 1 2</p> <p>심중에 / 남아 있는 / 말 한 마디는 1 1 2 1 1 1 1 1 1 1 1 2 끝끝내 / 마저 하지 / 못하였구나. 1 1 2 1 1 1 1 1 1 1 1 2 사랑하던 / 그 사 람이여! 1 1 1 2 2 1 1 1 2 사랑하던 / 그 사람이여! 1 1 1 2 2 1 1 1 2</p> <p>붉은 / 해는 / 서산마루에 / 걸리었다. 1 1 1 2 1 1 1 1 2 2 1 1 2 사슴의 / 무리도 / 슬피 운다. 2 1 1 1 1 2 2 1 2 2 떨어져 / 나가 앉은 / 산위에서 1 1 2 1 1 1 2 1 1 1 2 나는 / 그대의 이름을 / 부르노라. 2 1 1 1 2 1 1 2 1 1 1 2</p>
---	--

* 휴지: / 음의 장단: 1,2 강음: .

이 단계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먼저 스스로 시 낭독 활동을 한 뒤 한국인의 시 낭송 음원자료와 비교하면서 차이를 인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연행에 존재하는 불확정적인 부분을 포착하고 이를 자신의 감상 체험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시의 리듬과 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구안하였다. 학습자는 시 낭송의 음원자료를 비교하면서 느끼거나 체험한 것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시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미디어 음원 자료와 자신의 낭독 과정을 비교하여 반응을 나타낸 자료이다.

[실험Ⅲ-04-PA-산유화]

T: 아까 낭독 자료를 들어봤는데 자신이 읽은 것과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S: 낭독 자료에서는 꽃이 피다 또 지다의 순환적인 과정을 잘 느꼈어요. 저는 이 꽃의 생명을 리듬으로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T: 낭독 자료에서 꽃의 순환적인 생명과정을 어떻게 느꼈어요?

S: 낭독자가 처음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의 어조와 리듬을 통해 느낀 거예요.

[실험Ⅲ-02-PA-초혼]

T: 아까 낭독 자료를 들어봤는데 자신이 읽은 것과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S: 한국인이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시에 나타난 분위기를 살려서 읽는 느낌이에요. 리듬에 감정을 제대로 이입하고, 마치 시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 이렇게 앞에 시도해본 낭독을 통해서 「초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을까요?

S: 「초혼」은 처음에 내용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시의 형식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풀면서 시인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미디어 자료를 통해 리듬 인식을 재구성하고 시적 화자에 대해 정서적 공명을 가지게 되었다. 「초혼」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화의 리듬을 따르고 있는 시이다.³⁵⁾ 이러한 리듬의 연행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고 정서의 변화에 따라 상상을 전개하게 한다. 학습자가 미디어 자료와 자신이 낭독한 과정을 비교하는 활동은 한국 민요의 가락과 시의 한스러운 정서를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하고 시에 대한 전체적 감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35) 노철, 앞의 논문, p.273.

한국 문학교육에서 교사는 효과적인 감상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에 공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시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이해 과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는 낭독을 통해 리듬의 의미와의 호응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동시에, 시에 대한 여백을 메우면서 작품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3) 리듬 인식을 활용한 모방시 쓰기

리듬 인식의 형성 단계, 의미화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인 리듬 인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마지막의 내면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시의 리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내면화 과정은 학습자가 시에 대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런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완성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시의 리듬 인식을 내면화하고 시의 의미를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시의 형식과 의미를 고려하면서 시를 직접 창작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시 창작은 시 감상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시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시를 잘 감상할 수 있어야 시를 바르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내게 된다.³⁶⁾ 한국 시의 압운·음보·강세 특징을 활용한 시 창작은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 작품의 리듬적 효과를 살리면서 자신이 가진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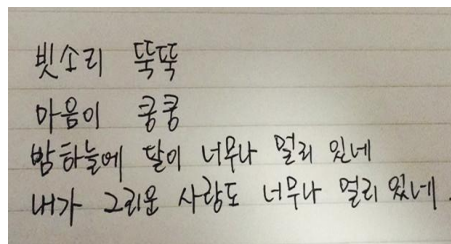
시 창작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패러디(parody)³⁷⁾ 방법이다. 패러디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 것이 이미 알려진

36) 강희근, 『시 짓는 법』, 남새미, 1996, p.14.

37) 패러디parody란 para-(at the side of, alongside, beside : 側, 以上, 부정)와 odia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aeidein의 축약형으로 불어에서는 ode이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訟詩, 서정시”란 뜻으로 사용된다)의 합성어이다. 문학 및 음악에서 원작을 풍자적이고 익살스럽게 바꾼 “개작 시문(詩文), 희문(戲文), 익살스러운 변곡(變曲)”등을 일컬으며, “서투른 모방, 흉내”의 뜻으로 자주 사용된다.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

텍스트를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수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재약호화한다는 것이다.³⁸⁾ 즉 원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을 메타 언어적인 접근으로 유사하게 재해석하여 독특한 패러디 텍스트를 창작한다는 것이다. 모든 작품은 다른 작품에 대한 부정·부활·변형이며, 각각의 작품은 유일한 실체인 동시에 다른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패러디는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 모방이 될 수 있다.³⁹⁾ 본 연구에서 김소월 시의 압운·음보·강세 리듬 특징을 활용한 시 창작 활동은 적극적 독자로서의 글쓰기 활동이며, 중국인 학습자의 리듬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완성해주는 이해-표현 활동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창작 표현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을 내면화시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단계에서 압운·음보·강세를 활용한 창작 시 쓰기 활동에서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과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Ⅲ-05]



[실험Ⅲ-05]

T: 이 모방시의 창작과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S: 한국 시의 리듬을 활용해서 시를 창작해보라고 해서 저는 한국 시의 리듬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반복된 압운과 「진달래꽃」과 비슷한 음

을 기교 있게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 풍자한 것이 특징이다. J. M. Stein,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New York:Random House, p.1050. 참고.

38) 유영희, 「패러디를 통한 시 쓰기와 창작 교육」, 『국어교육연구』 vol.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5, p.82.

39) 김준오, 『한국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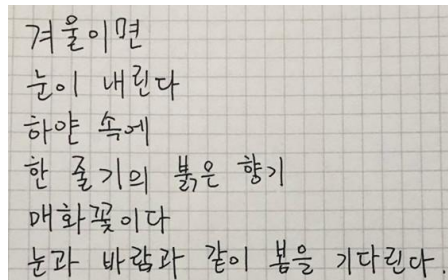
보로 이 작은 시를 썼어요.

T: 직접 시를 창작해보고 한국 시의 리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S: 시를 쓰기 전에는 그저 눈으로 리듬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신간을 걸려서 시를 창작해보니까 한국 시의 리듬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습자 05의 경우, 창작 시 쓰기에서 한국 시의 리듬 특징과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적당히 결합하면서 원텍스트의 형식이나 시의 정서를 의미 있게 변용하여 재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뚝뚝’과 ‘쿵쿵’은 동일한 음소의 반복으로 압운적인 효과를 형성하였다. 또한 시에서 ‘~네’라는 어미의 반복적 사용은 학습자가 한국 시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종결어미의 어조적인 작용과 한국식의 압운 형성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심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뚝뚝’과 ‘쿵쿵’이라는 의성어의 사용은 압운을 형성하는 동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언어의 감수성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의 리듬이 의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시 창작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쓴 시 창작 작품의 리듬을 최대한 살리면서 낭독해보게 하였다. 그 결과로 학습자는 의성어의 반복과 ‘~네’라는 종결어미의 강조를 통해 음의 장단, 강약, 고저적인 어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리듬의 반복성을 활용하여 한국 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험Ⅲ-03]



겨울이면
눈이 내린다
하얀 속에
한 줄기의 붉은 향기
매화꽃이다
눈과 바람과 같이 봄을 기다린다.

[실험Ⅲ-03]

T: 이 모방시의 창작과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S: 저는 한국의 시가 중국과 같은 압운 형식을 가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를 썼을 때는 「산유화」에서 나온 리듬 표현을 많이 모방했어요. 한 단어의 반복이나 어미의 반복을 많이 모방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행으로 시의 음보를 나타내려고 하고 ‘~다’로 하강한 어조를 형성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T: 직접 시를 창작해보고 한국 시의 리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S: 인식한 리듬 특징을 직접 활용해 창작해보니까 리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밌었어요. 저도 한국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위 학습자의 창작 시 쓰기 양상을 보면 시행의 배열을 음보와 의미군에 따라 분절함으로써 호흡과 의미의 질서에 변화를 주고, 통일된 어미로 시의 함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끊어 읽기 습관과 한국 시 리듬 특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리듬 인식을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다’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어조이며, 반복된 형태로 시어에 리듬감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시행이 ‘~다’로 간명하게 완결되는 것은 시에 음성적 효과를 가져주는 동시에 시의 순수한 분위기를 드러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사용과 간단한 어휘로 구성된 이 시는 학습자의 언어 지식의 한계점 또한 드러내고 있다. 종합하면, 이 학습자의 한국어 지식은 한계적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 문학 작품의 형식과 의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 해나가는 태도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과 이들에 대해 추후 실시된 인터뷰는 학습자들이 작품을 자신과 연계 짓고 한국 시의 리듬적 요인을 활용하여 시 한 편을 적극적으로 창작하며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한국 현대시에 대한 형식적 표현 능력과 정서적 표현 능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 창작 쓰기 활동은 단순히 학습자들이 원텍스트의 리듬 표현 기교나 시의 전개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다. 창작은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교실에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이 한국 시의 리듬 이해와 시 감상에 작용하는 양상을 밝히고, 실제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특유한 사고방식과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한국 현대시 이해에 중요한 요소인 리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겪는 현대시 이해의 어려움을 줄이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 현대시의 속성에 있어서 리듬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한국어 언어 자체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습관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듬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배경지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중국 현대시의 리듬적 특성과 한국 현대시의 리듬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고의 접근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시에 대한 리듬 인식을 형성하는 데 적합한 처방이 될 것이다.

학습자의 시 리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읽기 활동은 시에서 나타나는 리듬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리듬 인식의 층위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의 문학교육을 통해 형성한 리듬 인식인 압운, 끊어 읽기, 성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한국 현대시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국 현대시를 대표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리듬 인식을 충분히 환기시켜 확인하기 위해 형식이 특징적인 중국 현대시를 비교학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한국 시 리듬의 개념을 밝히고 리듬 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이러한 리듬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 인식을 통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리듬 인식 구조와 학습자의 주체적인 지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리듬 인식의 구조가 형성된 원인은 자국의 정형시 ∙ 현대시의 리듬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먼저 중국 시 리듬의 자질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리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원리를 ‘습관화된 반응을 고려한 기대지평의 재구성’, ‘텍스트와의 소통을 통한 시적 사유의 전환’, ‘경험 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인식의 확장’의 세 단계로 나누어 리듬 이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핵심 범주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비교문학적 방법론과 수용미학적 방법론이 바탕이 되었다.

이로부터 생성된 범주에 따라 III장을 살펴보면, 먼저 ‘압운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학습자들이 중국 시의 압운 형식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한국 시 텍스트에서도 같은 형식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읽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다음에 ‘끊어 읽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학습자가 자신의 리듬 인식을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나머지 하나인 ‘성조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은 학습자가 대상 한국 시 텍스트의 리듬에 성조를 부여하고 강약을 이루면서 시를 읽는 양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국과 중국의 시적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문학적 충돌과 화해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기존의 리듬 인식이 가지는 성격과 목표어 시 이해 정도 간에는 주로 촉진과 방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연관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리듬 인식을 활용한 시 읽기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리듬 인식과 시 이해 간에 긍정적인 상호 영향은 ‘리듬 이해가 압운 인식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양상’, ‘리듬 이해가 끊어 읽는 습관에 기반하여 의미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양상’, ‘리듬 이해가 성조 인식에 기반하여 소리의 억양과 감정 기복에 따라 공감 전개되는 양상’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한계점은 주로 리듬 인식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모국어와 목표어 시 텍스트 간의 리듬적인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 기존의 리듬 인식에 끊임없이 기대게 되어 편벽한 시각으로 이해 대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장 내용 분석을 토대로 IV에서는 리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리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의 촉진, 의미화 과정을 통한 리듬 이해의 확장, 스키마 재구성을

통한 문학 능력의 함양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세웠다. 그 내용으로 비교문학을 통한 리듬 인식 형성, 리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 소통과 표현을 통한 내면화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리듬 인식을 위한 비교 · 발문 조정하기, 리듬 인식을 활용한 낭독하기, 리듬 인식을 활용한 모방시 쓰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유한 시적 사고방식과 리듬에 대한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리듬 인식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 시 읽기 과정, 한국 현대시의 표면적이지 않은 리듬감을 실감할 수 있는 과정,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서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시 텍스트의 핵심적 자질 중의 하나인 리듬의 특성을 학습자 중심의 시 읽기 활동을 통해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리듬에 대한 압운 인식, 끊어 읽는 인식, 성조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의 가능성을 비교적 제한적인 대상 작품과 목표를 통해서만 검증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작품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한국 시의 리듬 인식을 일반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구현되고 본 연구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연구 자료

- 김소월, 김용직 편저, 『김소월 전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金鶴哲, 『韓國現當代文學經典解讀』, 北京大學出版社, 2011.
劉半農, 蕭楓 選編, 『揚鞭集: 劉半農作品精選』, 遼海出版社, 2009.
聞一多, 曉彰 選編, 『聞一多詩選』, 浙江文藝出版社, 2004.
徐志摩, 『徐志摩詩選』, 北京燕山出版社, 2014.

2. 국내 논저

- 강홍기, 「한국 현대시의 압운(押韻)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지』 vol.16,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고정희, 「고전시가 율격의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고정희, 「〈영변가〉와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적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vol.30, 한국시가학회, 2011.
구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
권영실, 「표준중국어 억양연구의 현황과 방향」, 『中國學研究』 vol.30, 2004.
김 옹,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교육 방법 연구: 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남희, 「현대시 수용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고등학생 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대행, 「민요조 재고」, 국어국문학회 엮음, 『현대시 연구』, 정음사, 1981.
-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 김대행, 『우리시의 틀』, 문학과비평사, 1989.
- 김대행, 『韻律』, 文學과知性社, 1984.
-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 김미혜, 「지식 구성적 놀이로서의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상수,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vol.60, 2013.
- 김수업, 『배달말꽃-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2002.
- 김용직, 「예술적 차원과 저항성: 김소월론」, 『서정시학』 vol.12(3), 서정시학, 2002.
- 김유신·윤상근, 「문화다원주의, 문화적 정체성, 공약불가능성」, 『대동철학』 vol.57, 대동철학회, 2011.
- 김정곤, 「수용미학과 비교문학-수용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6,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2.
- 김정용,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호문화적 외국어 교육」, 『독어교육』 vol.51,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2001.
-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정우, 「시 형식의 의미에 대한 시 교육적 고찰」, 『문학교육학』 vol.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 김종길, 「詩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詩에 대하여』, 민음사, 1986.
- 김주희, 『문화인류학』,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1.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김창원, 「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작용 양상」, 『시 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김태옥, 「문학매체로서의 언어」, 『영어영문학』 vol.32, 1986.

- 김학동,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4.
-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노 철, 「시 감상교육에서 운율의 활용 연구」, 『한국시학연구』 vol.11, 한국시학회, 2004.
- 노 철, 「시 낭송교육에서 운율과 독자의 상호작용태와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연희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2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민재원, 「현대시 리듬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성근, 「현대시 교육을 위한 리듬의 재이해」, 『국어교육연구』 vol.61, 국어교육학회, 2016.
- 박성희, 『공감학』, 학지사, 2004.
-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주형, 「시 텍스트의 상징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 백운복, 『현대시의 논리와 변명』, 국학자료원, 2001.
- 서우석, 『시와 리듬』, 문학과 지성사, 1981.
- 선주원,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3.
- 성강옥, 「韓國詩歌의 律格體系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0.
- 손남호, 「표준 중국어의 경계억양에 관한 연구 :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엄태동,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2001.
- 오성호, 『서정 시의 이론』, 실천문화사, 2006.
- 오세영, 『한국 근대문학론과 근대시』, 민음사, 1996.
-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오지혜·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vol.131, 한국어교육학회, 2010.

- 우한용, 「문학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반 검토」, 『선청어문』 vol.3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4.
- 윤여탁 외,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vol.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현대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vol.111, 2003.
-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10.
-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도서출판하우, 2015.
- 윤여탁, 『현대시의 내포와 외연』, 태학사, 2009.
-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4.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이노미, 「비교문화의 이론」, 『인문과학』 vol.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이상아, 「운율 교육에서 현대시 읽기 방법의 모색」, 『독서연구』 vol.42, 2017.
- 이성호, 『시와 독자의 대화』, 범우, 2013.
- 이유선, 「작품의 수용과 영향, 독자의 능동행위」, 박찬기, 수용미학, 고려원, 1992.
- 이현복,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vol.1, 1976.
- 이혜원, 『현대시 운율과 형식의 미학』, 서정지학, 2015.
- 임규홍, 「‘쉽’의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 『한글』 vol.235, 1997.
- 전 홍,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 전 홍, 「한·중 현대시 대비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 정정순, 「현대시 교육에서의 운율 교육 내용 재설정 연구: 운율 개념을

-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vol.48, 문학교육학회, 2015.
- 정한모, 『한국 현대시의 정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정혜인, 「중국어 경성이 한국어 문말 억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재룡, 「리듬과 의미」, 『한국시학연구』 vol.36, 한국시학회, 2013.
- 조창환, 『한국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일지사, 1986.
- 진가연,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시 감상의 구체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차봉희, 「작품의 구체화에 대한 수용미학적 견해」, 『독일문학』 vol.32, 한국독어독문학회, 1984.
-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7.
- 최명선, 『해석학과 교육: 교육과정사회학 탐구』, 교육과학사, 2005.
-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부재(不在)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미숙, 「시의 형식과 주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김은전 외, 『현대시교육론』, 시와시학사, 1996.
-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vol.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8.
- 최지현, 「현대시 리듬 범주의 재설정을 위한 기초 논의」, 『문학교육학』 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 한계전 외,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 황라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 역서 및 국외 논저

- Collot, M., *poesie moderne et la structure d'horizon*,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 Culler, J., *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조규형 역, 『문학이론』, 문학동네, 2016.
- Dewey, J., 조용기 역, 『흥미와 노력: 그 교육적 의의』, 교우사, 2010.
- Eggen, P. D. & Kauchak, D. P., *Strategies and Models for Teachers: Teaching Content and Thinking Skills(6th ed.)*, 임청환·강영하·권성기 옮김, 『교사를 위한 수업 전략』, 시그마프레스, 2014.
- Fish, S.,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New Literary History Vol.2(1), 1970.
- Gardamer, H. G., *Truth and method*, N. Y.: Seabury Press, 1975.
- Hall, G., *Literature in Language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2005.
- Hegel, G. W.,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두행숙 역, 『헤겔의 미학강의』 vol.3, 은행나무, 2010.
- Husserl, E., 이영호·이중훈 옮김, 『현상학의 이념·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서광사, 1988.
- Iser, W., *Akt des Lesens*,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1993.
- Maley, A. & Duff, A., *The Inward Ear: Poetry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Meschonnic, H., *Critique du rythme ; anthropologie historique du langage*, Verdier, 1982.
- Ong, W. J.,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Rosenblatt, L. M., *Reader, the text, the poem*, 김혜리·엄혜영 공역, 『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2008.
- 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안규남 공역, 『체험연

- 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동녘, 1994.
- Van Tieghem, *(La)Literature comprae*, 김동욱 역, 『비교문학』, 柱英社, 1975.
- Warnke, G., *Gadamer*, 이한우 역,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1999
- York, R. A., *The Poem as Utterance*, Methuen: London and New York, 1986.
- 郭沫若, 「論節奏」, 『文藝論集』, 人民文學出版社, 1979.
- 駱一禾, 『駱一禾詩全編』, 上海三聯書店, 1997.
- 駱寒超, 『20世紀新詩綜論』, 學林出版社, 2002.
- 呂正惠, 『抒情傳統與政治現實』,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11
- 李章斌, 『在語言之內航行: 新詩韻律及其他』, 人民文學出版社, 2014.
- 卞之琳, 「哼唱型節奏(吟調)和說話型節奏(誦調)」, 『作家通訊』 vol.9, 1954.
- 沈小喜, 「漢語的節奏單位與語法結構」,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8.
- 艾 青, 『詩論』, 花城出版社, 1985
- 於愛萍, 「中學語文詩歌教學的缺失與審美回歸」,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04.
- 王 力, 『漢語詩律學』, 上海教育出版社, 2005.
- 王家新, 「讓詩歌照亮語文教學」, 『語文建設』 vol.6, 2008.
- 袁行霈, 「中國古典詩歌語言的音樂美」,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7.
- 丁 魯, 『中國新詩格律問題』, 北京昆侖出版社, 2010.
- 程培英, 「比較文學若干理論問題的思考」,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趙元任, 「漢語語調研究」, 『中研院史語所集刊』 vol.4, 1933.
- 宗白華, 「歡心的回憶和祝賀」, 『時事新報』, 1941.
- 朱光潛, 『詩論』,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4.
- 周 宏, 「中學語文現代詩歌的教學反思及初探」, 『現代語文』 vol.3, 2014.
- 朱棟霖·龍泉明, 『中國現代文學經典(II)』,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陳惇·劉象愚，『比較文學概論』，北京師範大學出版社，2015.
- 何其芳，「關於現代格律詩」，『人民文學』vol.10，中國作家協會，1954.
- 許 霆，『中國新詩韻律節奏論』，北京師範大學出版社，2016.
- 黃正剛，「淺談中學語文現代詩歌教育的意義」，『現代語文：教學研究版』vol.9,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Modern Poetry Rhythm
Comprehension Education for Chinese Korean Learners
- Focused on Kim So-Wol's 「Azalea(진달래꽃)」, 「the
Spirits of the Dead(초혼)」, 「Sanyuhwa(산유화)」 -

Wang, Linchang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 method that enables Chinese learners to recognize the rhythm of poetry and understand Korean modern poetry. Rhythmia i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essence of a poem, with its peculiar externalism of poetic expression. One of the problems that Chinese learners face in learning Korean modern poetry is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hythm of Korean contemporary poetry. The rhythm recognition of native language poetry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and denoting poetic works is one of the reasons why Chinese learn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modern Korean language.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rhythms of the Korean modern times by properly utilizing the rhythm recognition of the mother tongue.

For this matter, the study looked at the use of rhythm recognition by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Kim So-wol's 「Azalea(진달래꽃)」,

「the Spirits of the Dead(초혼)」 and 「Sanyuhwa(산유화)」. Kim So-wol's folk song wa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piece of Korean contemporary rhythm, and was easy to learn because it contains a superior Korean contemporary rhythm.

The study used the above works to describe the possibility of boosting learners' native language rhythm in Korean language classroom, and to suggest ways to utilize them in actual Korean education. An analysis of Chinese learners' native language rhythm patterns led to three main trends of rhyme recognition, cut off read recognition and tone recognition prior to the discussion. Based on this, the Commission sought to find ways to solve the current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hinese learners in understanding the modern times.

The principle of Korean contemporary rhythm comprehension based on earlier discussions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expectation horizon based on habitual response' and 'the expansion of recognition of the structure through communication with text'.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literature and the acceptance aesthetics has becom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reation of these key categories.

Then, based on specific data, the researchers looked at the patterns of reading modern Chinese poetry using the rhythm of learners. We used a 'tendency to read poems using rhyme recognition', 'tendency to read poems using break up read recognition' and 'tendency to read poems using tone recognition' to categorize aspects.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in the process of Chinese learners activating their own rhythm perception have effects in boosting and stopping poetry. The acceptability of different learners to apply empirical perception to their own devices has made it more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rocess of filling in and deferring visual gaps in the text is more important.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current Korean contemporary rhythm understanding education were presented based on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identified in the Chinese learner's analysis of the current reading patterns. First, the objectives of education were presented in three categories : promoting smooth access to rhythms, expanding understanding of the rhythms by means of the semantic process, and boosting literary abilitie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schema. Education contents were set up to form a rhythm recognition through comparative literature, meaning based on a rhythm recognition, and internalization through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respectivel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education contents, the method of professor-learn was to activate the rhythm recognition by comparing works and to create rhythm recognition by adjusting informati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education of the contemporary learner's ability to recognize the rhythm of a poem through its own activities, and to understand its meaning by emphasizing the harmony between the rhythm as an extra-text format and the inner context. Second, the learning activities of comparing and understanding the rhythms of contemporary Korean and Chinese poetry can be a significant process by which learners discover differences in litera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have an open attitude. Third, reading and creative activities that project the learner's own perception of rhythm to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may become the process of facilitating the internalization of poetry and extending the learner's literary experience.

keywords: Modern poetry, rhythm recognition, rhythm understanding, comparative literature, background knowledge

Student Number: 2015-22398